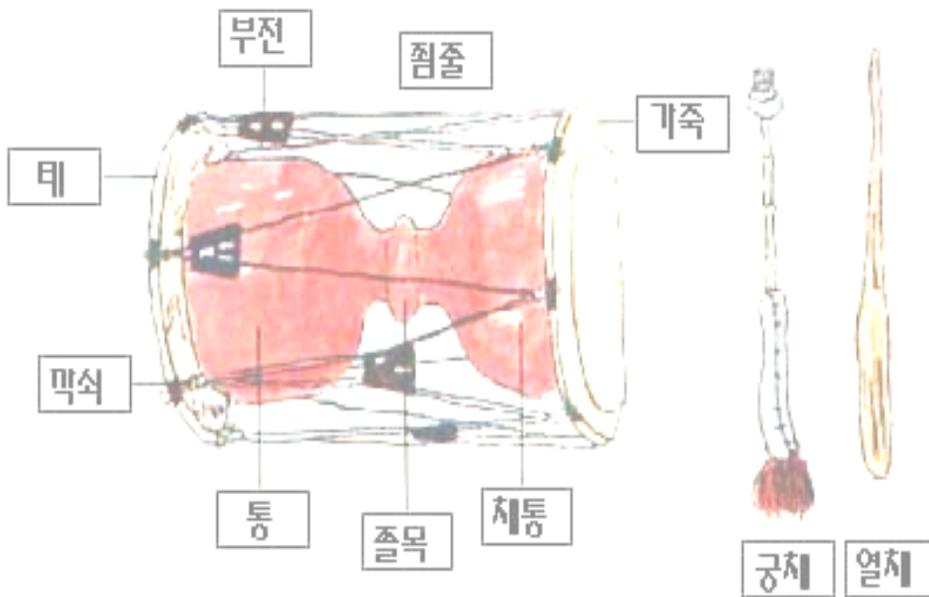


2006 제천간디학교 1학년 움직이는 학교(moving school)

# 얼씨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연 제: 2006년 4월 10일 ~ 4월 27일

어디서: 전남 장성 한마음공동체

누 가: 고예솔 김다솔 김민성 김민욱 김은정 김현지 김혜민 문정수  
문혜린 박시연 신지수 오드림 오한길 우종주 유성호 윤영미  
이기봉 이빛나 임강토 전인하 조의찬 조하늘 한다빈 한승태  
이임주 김병삼 신은미 오영란 최성훈 한석주 아이카 스테판 (교사)

**제천간디학교**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3 (우)350-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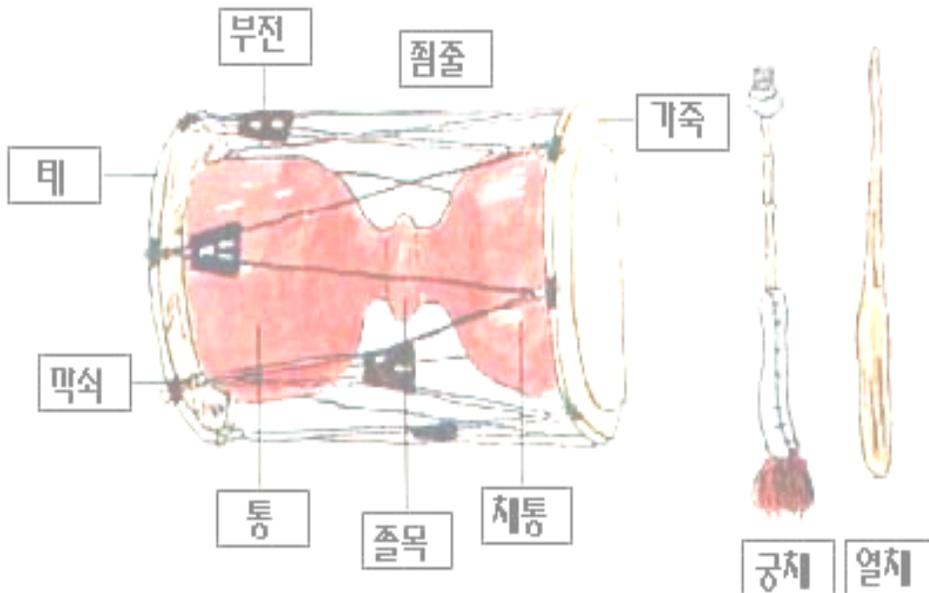
전화 043)653-5791~2 전송 043)653-5798







# 얼씨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연 제: 2006년 4월 10일 ~ 4월 27일

어디서: 전남 장성 한마음공동체

누 가: 고예솔 김다솔 김민성 김민욱 김은정 김현지 김혜민 문정수  
문혜린 박시연 신지수 오드림 오한길 우종주 유성호 윤영미  
이기봉 이빛나 임강토 전인하 조의찬 조하늘 한다빈 한승태  
이임주 김병삼 신은미 오영란 최성훈 한석주 아이카 스테판 (교사)

## 제천간디학교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3 (우)350-852  
전화 043)653-5791~2 전송 043)653-5798



## ■ 차례 ■

2006년도 1학년 무빙스쿨 '우리것이 좋은 것이여' 소개	9
책 읽으며 준비하는 무빙스쿨 -----	11
기대된다, 무빙스쿨 -----	13
장성 한마음공동체 -----	14
세계적인 생태.문화도시 꾸리찌바 -----	16
전라남도요잉~ -----	17
오메, 장성도 궁금해부러야~ -----	18
황토집짓기 -----	19
천연염색 -----	27
도자기체험 -----	33
4.19혁명 -----	45
풍 물 -----	49
갯 벌 -----	71
메 모 -----	75
함께 부르는 노래 -----	83
연락처 -----	87



# 얼씨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1. 장소: 전남 장성 한마음공동체 ([www.yuginong.co.kr](http://www.yuginong.co.kr))

## 2. 일정 및 프로그램

날 짜	프로그램
4월 10일(월) 3시까지	장성 한마음 공동체로 집결
4월 11일 ~ 4월 15일	황토 집짓기
4월 16일 일요일 오전	온천 가서 몸 풀기, 염색
4월 16일 ~ 4월 19일	염색, 도자기 체험
4월 20일 ~ 4월 26일	풍물전수
4월 26일 오후	풍물 발표회 및 전시회
4월 27일 오전	전체 정리 및 해산

## 3. 준비물

- ① 모듬 준비물 : 밑반찬, 코펠, 버너, 설거지 도구, 양념세트, 칼과 도마
- ② 개인 준비물 : 속옷(4~5벌), 세면도구, 노트, 필기구, 수저, 수건2~3개, 배낭 혹은 여행용 가방, 운동화, 샌들 및 슬리퍼 류(원하는 사람에게 한해), 운동복 상하 1벌, 잠바, 티, 바지, 모자, 양치 컵, 양말 (2~3켄레), 염색할 의류 (속옷이나 면티), 작업복 2벌, 수영복(있는 사람에게 한해), 약품(개인이 복용하는 약, 렌즈케이스 및 세척제), 스케치북, 매직, 무빙스쿨 자료집, 본인들이 선택한 필독서

## 4.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알림

- ① 하루 두 끼는 장성 내 식당에서 해결하며 저녁 한 끼는 모듬별로 직접 만들어 먹는다.
- ② 모듬별 저녁 메뉴는 모듬원들끼리 가정학습 기간 동안 정하도록 한다.
- ③ 모듬 메뉴 짤 때 유의할 사항-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하며 우리밀 라면으로 준비, 인스턴트 식품불가, 고기는 가급적 피하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한다.

## 5. 신나는 배움을 위한 약속

- ① 만화책, MP3, 디지털카메라, 환타지소설, 무협지, 카드 등 무빙스쿨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가지고 오지 않기로 한다.
- ②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배려한다.





## ■ 책 읽으며 준비하는 무빙스쿨 ■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존 라이언 저, 그물코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녹색평론사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 존 라이언 등저, 그물코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스코트 새비지 편저, 나무심는사람  
『가비오따스』, 앨런 와이즈먼, 월간 말  
『선이골 일곱 식구 이야기』, 김용희 저, 임종진 사진, 산티

『쪽물들이기-빛깔있는책들 205』, 한광석 글.사진, 대원사  
『쉽게 구할 수 있는 염료식물』, 임형택 글, 박수영 사진, 대원사  
『옹기-빛깔있는책들 106』, 정양모.이훈석.정명호, 옹기문화가족 사진, 대원사

『옛기와-빛깔있는책들 122』, 김성구 글 사진, 대원사  
『단청-빛깔있는책들 39』, 임영주 글, 김대벽 사진, 대원사  
『토담집』, 이화중, 소명출판

『4.19혁명-역사 다시 보기』, 김정남 지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만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3. 광주사태에서 노.전구속까지』, 백무현 글.그림, 가람기획

『홍길동전』-재미있다! 우리고전 03, 정종목 글, 이광익 그림, 창비

\* 이 외에 니어링 부부의 이야기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조화로운 삶』,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등

### ■ 무빙스쿨 오기 전에 꼭 읽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책 ■

『숨쉬는 도시 꾸리찌바』 안순혜 글, 박혜선 그림, 파란자전거  
『행복한 실천: 대안사회를 일구는 사람들 이야기』, 서화숙 저, 우리교육  
『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 정옥기 지음, 들녘  
『나는 박물관이 좋다: 3. 동굴납작도자기』, 오명숙 저, 도웅철 그림, 문학동네  
『4.19혁명-역사 다시 보기』, 김정남 지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땅땅이의 요리일기』, 한살림



■ 나는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

## ■ 기대된다, 무빙스쿨! ■

■ 이번 무빙스쿨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을까?

■ 간디학교의 무빙스쿨이란 뭐라고 생각하니?

■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뭐야?

■ 이 대답들을 무빙스쿨이 다 끝난 후의 마음과 비교해보면 재미있겠지?



## ■ 장성 한마음공동체 ■

### ■ 한마음공동체 소개

전남 장성군 남면 백운교회의 남상도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장성 농민회를 중심으로 80년대 현실사회와 농업,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앞장서서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운동의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고 농업 농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의, 생명, 민족공동체에 근거한 생산, 유통, 소비가 함께 어우러져 생활 속에서 농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호남 최초의 유기농업단체인 한마음공동체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즉, 한마음공동체는 모여사는 생활공동체가 아닌 생명먹거리를 위한 경제목적공동체이며, 한마음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의 이름이다.

### ■ 한마음공동체에서 하는 일

한마음 공동체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배제한 유기농법 재배 및 확대로 땅과 자연을 살리는 것은 물론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협동관계를 회복하고, 농촌과 도시 간에 공동목표를 매개로 서로 협동하면서 공생공존의 여건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의 직거래를 통해 농촌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도시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보답하여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지역 공동체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남면 마령리, 덕성리, 평산리, 분향리 지역 60농가가 생산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추, 깻잎, 치커리, 당근, 고추, 양파, 고구마, 감자, 미나리, 무 등의 채소류와 쌀, 현미, 흑미 등의 잡곡류와 딸기, 오이, 토마토 등의 과채류를 60농가의 한마음 공동체 조합원들이 생산한다. 물론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안전한 농산물들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구할 수 없는 품목은 전국의 믿을 만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시켜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기농 논농사에 꼭 필요한 제초용 우렁이 양식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작물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용 대형 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3월 한마음공동체 창립 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광주 백운동 현대아파트 주민들과의 직거래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광주에서 2,000세대가 넘는 소비자 회원을 확보하였고 지역 농민 30세대가 유기 농업에 동참하였다. 1996년 이후 차량 직거래를 축소하고 매장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바꾸면서 현재 광주지역 봉선동, 화정동, 중흥2동, 하남, 학동, 풍암지구, 첨단과학단지 등 30군데에서 매장을 통해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행사 및 모내기, 추수 감사절 때 행사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광주 지역 30군데 매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들과 접하고 있다. 또한 함께 의식이 공유된 서울의 여러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과도 꾸

준한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서 자연학교와 생태유치원을 통해 생산자교육 소비자교육 대안교육 및 농촌문화를 도시민이 즐기며 농촌은 농외소득으로 녹색 관광을 실천하는 그린투어리즘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 현재 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해 삼만명 명이 넘게 방문하여 유기농업 경험을 나누고 있다.

## ■ 한마음자연학교

새로운 21세기가 요구하는 자연 환경농업 체험을 통해 자연친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공동체 정신, 창의적 사고, 노동의 귀중성을 습득하여 홍익인간 교육상을 실현한다.

### 1) 환경농업 체험교육의 목표

- 도시공간에서 부족한 자연학습을 농촌체험을 통해 습득한다.
-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식을 강화한다.
- 농업의 소중함을 체험함으로 도농간 연대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유기농업 경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귀중함을 알고, 생명\*생태 회복운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공동작업을 통해 노동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필요성을 체험케 한다.
-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체험함으로 학생,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 2) 한마음자연학교 설립과정

한마음공동체는 90년부터 유기농업을 통해 도.농간 직거래를 발전시켜 오다가 99년 농림부, 전라남도, 장성군의 지원을 받아 총 9억여 원의 사업비로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농업교육장을 세워 농촌체험을 통한 자연학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4월 개장 이후 4천여 명의 교육생이 다녀갔으며 특히 8월중에 실시된 한겨레신문사의 가족캠프는 230명이 3박4일 동안 본 교육장의 프로그램에 의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휴가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

한마음환경농업교육장을 설립한 남상도 목사는 1997년 전라남도 농민대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2000년 전라남도 신지식인 1위로 선정되었고 '한마음환경농업교육장'설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 자료출처: 한마음공동체 홈페이지([www.yuginong.co.kr](http://www.yuginong.co.kr))



## ■ 세계적인 생태문화도시, 꾸리찌바 ■

### ■ 숨쉬는 도시 꾸리찌바

꾸리찌바는 브라질에 있는 작은 마을로 세계적인 생태도시이다. 꾸리찌바를 바꾼 장본인은 젊은 건축가 '자이메 레르네르'로 꾸리찌바가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꾸리찌바시의 시장이 되었다. 레르네르 시장은 돈보다 시민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지 궁리했다. 그리고 드디어 시민의 협조로 꾸리찌바를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바꿔냈다.

### ■ 꾸리찌바의 나무에 대한 애착과 나뭇잎 가족캠페인

꾸리찌바는 나무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 자기 나무라도 허가를 받고 베어야 한다. 만약 어길 경우 벌금이나 벤 나무의 두 배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를 잘 가꾸는 가정이나 건물에는 세금을 줄여준다. 엄마, 아빠, 아이들은 함께 나뭇잎 모양의 옷을 입고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도 한다.

### ■ 꾸리찌바의 쓰레기 트럭

꾸리찌바에서는 재활용품을 주면 전표를 주는데 그것을 음식물과 교환할 수 있다. 그 재활용품들은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직자, 알코올중독자, 장애인이며, 수입은 모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

### ■ 꾸리찌바의 교통수단

꾸리찌바는 교통수단도 특이하다. 원통형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여주고 굴절버스는 한 번에 270명이 탈 수 있다.

이 내용은 『숨쉬는 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다. 도시계획가인 아빠와 환이가 꾸리찌바에 가서 그곳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꾸리찌바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꾸리찌바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부라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앞에 있던 차길을 없애고 대신 푸른 잔디광장을 만들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길거리 공연의 장소로 또 시민들의 휴식처로 한 몫 하고 있다.

\* 이 내용은 지수가 책을 읽고 정리하였습니다.

## ■ 전라도요잉~ ■

### ■ 전라남도는 말이재~■

서쪽으로 황해를 건너 멀리 중국과 마주 보고 있고, 남쪽으로 제주도와 마주 보고 있다. 온화한 날씨에 넓은 평야와 바다가 있어 농과 수산업이 함께 발달했다. 수많은 섬과 특이한 해안지형,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식물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있다.

### ■ 전라남도 연혁

- 1896년 8월 전라도가 남북 2도로 분할되어 전라남도가 창설됨.
- 1946년 8월 제주도를 도로 승격, 분리
- 1981년 7월 나주군 나주읍 일원과 영산포읍 일원을 통합, 금성시 설치
- 1986년 1월 여천출장소를 여천시, 금성시를 나주시로 명칭 변경
- 1986년 11월 광산군 송정읍이 송정시로,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 도와 분리
-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이 광주직할시로 편입
- 1989년 1월 광양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
- 1995년 1월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순천시,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하여 나주시,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하여 광양시로 함.
- 1998년 4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여수시로 통합함.

### ■ 맛과 멋이 있는 전라도랑께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라남도 특유의 걸걸함으로 만들어지는 특산품과 음식들~

영광 굴비 ■ 진도 미역 ■ 고흥 유자 ■ 담양 죽제품  
■ 보성 녹차 ■ 구례 산수유 ■ 여수 돌산갓 ■ 신안 홍어회  
목포 세발낙지 ■ 구례 나물과 약초 ■ 광양 재첩(갯조개) ■  
완도 김 ■ 곡성 은어와 참게 ■ 보성 전어 ■

오메~ 배고픈 거! ■



## ■ 오메, 장성도 궁금해부러야~■

### ■ 장성군은 어떤 곳이당가?

장성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선비정신'을 내세운다. 스스로 갈고 닦은 학문의 심오한 이치를 깨우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성은 추풍령에서 뻗어나온 노령산맥의 중심이자 전남의 관문이다. 전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지금은 호남터널을 통해 왕래가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전남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바로 노령산맥의 갈재를 넘어야 가능했다. 특히, 국도,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가 이곳에서 만나는 것만 봐도 관문의 기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북쪽으로는 백암산, 입암산과 방장산을 거느리고, 동쪽으로는 불태산, 서쪽으로는 축령산 등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장성은 두 마리의 용이 고을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좌청룡-우백호'의 명당 중 명당에 속한다. 일찍이 조종생은 장성의 형상을 보고 "산이 둘러있고 물이 굽이쳐 스스로 하늘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했다.

### ■ 하늘에서 흰 양이 내려왔다는 백양사

노령산맥의 백암산 가인봉과 백학봉 사이 골짜기에는 1,300년 역사를 간직한 백양사가 자리잡고 있다. 백양사는 백제 무왕 때 세워진 사찰로 본래 이름은 백암사였고, 1034년 중연선사가 크게 보수한 뒤 정토사라 불리었다. 그러나 고승의 설법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흰 양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의해 그 후 백양사로 불리우고 있다. 백양사와 백암산은 예부터 대한8경으로 꼽혔고 남금강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다.

### ■ 홍길동의 고향 장성

소설 속 주인공으로 알려진 민중의 영웅 홍길동이 조선왕조실록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장성 황룡면 아차곡에서 실존 인물로 다시 태어났다. 장성군은 생가터를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벌여 주춧돌 및 백자, 분청사기를 발굴하고 생가 터는 원형대로 보존하였다. 자리를 옮겨 생가를 복원한 홍길동전시관에는 출토된 유물과 1000여 권의 홍길동 관련책자, 다양한 캐릭터 입체영상물 등이 전시되어 있어 홍길동의 생애를 감상할 수 있다.

## ■ 황토집짓기 ■

### ■ 황토란?

대개 글자의 뜻처럼 “빛깔이 누르고 거무스름한 흙”을 말하며 가까운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황색내지 적갈색의 풍화토를 말한다.

### ■ 황토집의 좋은 점

- 온화하며, 포근한 느낌을 준다.
- 황토와 목재에서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을 뿜어내 유익하다.
-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나쁜 독을 중화시켜 피로회복에 좋다.
- 황토는 습도가 높을 때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 시에는 습기를 발산하는 등 자동 습도조절력이 뛰어나다.
- 바깥의 더운 열기를 막아주며, 날씨가 추울 때는 반대로 온기를 발산시킨다.
- 황토 미립자속의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풍기 역할은 물론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한다.
- 음식냄새, 담배냄새 등 기타 유해한 냄새를 신속히 흡수 정화 시킨다.
- 곰팡이 및 인체에 유해한 각종 균류의 서식을 방지한다.
-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로 유해전자파를 차단한다.
- 원적외선의 온열효과에 의해 약 30%의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다.

### ■ 흙집(황토집)의 단점

- 만드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면 흙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 흙이 떨어질 수 있다.
- 손이나 옷에 흙(황토)이 번진다.

### ■ 황토집 만들기

#### 1) 재료 구하기

흙은 찰흙보다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찰기가 높은 것이 좋다.  
황토집은 흙이 전부이기 때문에 좋은 황토를 골라야 튼튼하고 효능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황토를 만들려면 황토를 밀가루 반죽처럼 물에 오랜 시간 이겨야 좋은 재



료가 된다.

## 2) 집터 닦기

집 지을 면적만큼 구덩이를 판 다음, 단단하게 다진다.

집터를 닦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다.

단단하게 다진 땅 위에 자갈이나 크지 않은 돌들을 깔 다음, 흙을 넣고 다지면 기초공사는 끝이다.

닦여진 터 위에는 주춧돌을 놓는데, 사각기둥 모양으로 다듬는 것이 좋다.

## 3) 뼈대 세우기

먼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운다.

각 모서리를 먼저 세우고, 보를 엮는다.

그 다음에는 서까래를 올리거나 세부골조를 세운다.

세부골조를 세울 때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나무를 댄 다음, 자리를 잡아 고정시킨다.

## 4) 흙벽 만들기

흙벽은 3번 정도 발라줘야 벽체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흙벽은 황토 블록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황토 블록은 흙벽의 한 종류이다.

## 5) 지붕 얹기

황토집에는 여러 가지의 재료를 이용해 지붕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만드는 사람 나름이다.

초가집을 만들고 싶으면 벗짚을 올리고, 기와집을 만들고 싶으면 기와를 올리면 되는 것이다.

황토집은 지붕에도 흙을 깔아줘야 한다. 단열 효과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흙을 깔 때는 두텁지 않게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붕을 엮을 때는 수평을 맞춰서 엮어주자.

## 6) 내부 바닥 만들기

황토집에서 중요한 것이 구들장이다.

바닥이 따뜻해야 방 안까지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또, 수맥을 차단하기 위해 동판이나 알루미늄 판을 바닥에 깔다.

그 위에 보일러선을 촘촘히 깔고, 흙으로 덮어 마무리한다.

이 때, 황토바닥을 너무 두껍게 깔지 않도록 한다.  
바닥을 너무 두껍게 깔면 난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 효과가 좋은 황토방을 만들려면, 석을 바닥에 까는데, 흙과 층을 이루게 깔  
아야 한다.  
바닥을 다 깔면 반드시 보일러를 가동시켜 황토를 완전히 말린다.  
완전 건조되기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된다.

\* 출처: <http://www.hwangto.info> [2006. 3. 24]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03&eid=awrj8oCAP/9uxd12GK  
Mxo52CTjfxJtXr](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03&eid=awrj8oCAP/9uxd12GKMxo52CTjfxJtXr) [2006. 3. 24]



## 황토집 한 번 지어보장께!

2006년 4월 11일 불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근데, 잘 지을 수 있을랑가?

2006년 4월 12일 물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참말로 우리가 황토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잉?

2006년 4월 13일 나무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다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뭘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허벌나게 맛있는 향토집 되겠다!

2006년 4월 14일 쇠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오메, 황토집 한 번 징하게 지어부렸네!

2006년 4월 15일 훤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다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뭘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 천연염색 ■

### ■ 천연염색이란?

자연 속에서 채취한 꽃, 나무, 풀, 벌레, 조개 등의 자연재료로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천연염료는 색깔 있는 돌이나 흙 등의 광물성 염료, 식물의 잎, 꽃, 열매의 즙, 뿌리와 해초류 등의 식물성염료, 동물의 피, 오징어 먹물, 조개류의 분비물, 뽕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집인 오배자, 선인장 벌레 등의 동물성 염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염료에는 단색성 염료와 매염제의 종류, 색소의 추출온도, 염색과정 등에 따라 여러 색을 내는 다색성 염료가 있으며, 염색은 단색의 침염과 호염, 스크린 날염, 날염, 흘치기염, 형지염, 납방염등의 무늬염 등이 있다.

천연염색은 자연에서 채취한 색소로 염색하므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런 색감을 얻을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인체에도 유익하다. 산업화 이후 화학염색의 개발로 인해 거의 소멸되었으나 최근 들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친밀감으로 패션계에서는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용이 늘고 있다. 천연염료는 화학염료와 달리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오히려 향균성, 소취성 향 등이 다량으로 존재한다.

### ■ 천연염색의 기원

전통사회에서 염색은 하늘과 자연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데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신앙적 의미와 몸의 질병과 정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료와 개성적 멋을 누리는 심미적인 욕구가 발현되는 생활에서 염색의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게 된 동기중 하나로 장식의 욕구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염색문화를 발달하게 했다.

염색의 기원은 기원전 1만년에서 1만5000년전으로 알려졌지만 염색의 유물은 기원전 7000년 이후로 논의 되고 있다. 신체에 색깔있는 흙이나 돌로 채색하고 나무나 동굴벽면에 채색했던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직물염색과 그이전의 채색기술로 거슬러 가볼수 있다. 세계적인 유래를 보면 팔레스타인의 사막, 이집트 나일 강 하류 지역과 중근동의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 하류,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 프랑스의 라스코, 페르메르, 오리냐크 동굴벽화로 숲이나 적토, 황토, 흑토, 등 의 광물성 염료를 사용하여 선각, 채색, 여러동물의 모습을 그렸다. 홍화의 원산지인 이디오피아로부터 시작되어 인도 등 고대문명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도 유구한 색채 문화가 있다. 구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대략 기원전 10세기경)를 거친 동굴 벽화와 도구들과 채색토기들, 김해 패총에서 발견된



염직물들, 철기시대의 유물들, 낙랑시대의 채총협의 채화철협 등의 칠기류와 견직물의 뛰어난 염색기술을 볼 수 있으며 문헌(삼국지, 동이열전, 위서등등)을 통해 누에를 치고 뽕나무를 가꾸며 비단을 짜고 청색옷을 입었다는 기록을 통해 염색기술이 발달한 삼한시대의 염색문화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고구려의 고분벽화 속에서 당시의 생활양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으며 침염과 문양염, 선염 등의 염색법이 발달되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색은 궁중을 중심으로 한 지배 계층의 위치나 귀천의 구별을 표시하거나 신분의 역할을 표시하는 의복이나 장식품에 사용되었다. 신분에 따른 의복의 색 제한으로 염직 생산이 위축 되고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관을 중심으로 염직업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후 관장제 수공업이 점차 약화되고 민간 수공업내지 가내 수공업으로 쪽이나 홍화염색이 근근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 이후 합성염료의 보급으로 전통 식물염색은 단절되고 말았다.

## ■ 염료와 염색의 특징과 조건

- ① 정감 있고 은은한 색상을 발현해야 한다.
- ② 염료와 천의 견뢰도가 높아야 한다.
- ③ 주변에서 쉽게 구할수 있어야 한다.
- ④ 지역과 환경, 생육조건 수확시기와 경과 시간, 채취부위와 시기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야한다.
- ⑤ 햇빛, 바람, 손맛, 물 등의 조건을 일치시켜야 한다.
- ⑥ 염색과정 전체에 화공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과정을 거침으로 만드는 과정과 사용의 의미가 일치해야한다.

## ■ 천연염색의 색의 분류

음양오행사상에 따른 오방색(흑, 백, 적, 청, 황)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색이다.

**백색**-쇠의 기운으로 대장과 폐에 도움을 주며-염색의 바탕이 되는 우리 고유의 색

**황색**-토의 기운으로 지라와 위에 도움을 주며-애기뽕풀, 치자, 울금, 양파, 황벽, 황백

**청색**-목의 기운으로 간과 쓸개에 도움을 주며-쪽, 닭의 장풀, 쥐똥나무 등

**홍색**-화의 기운으로 심장과 소장에 도움을 주며-소목, 꼭두서니, 홍화, 토홍색

**흑색**-수의 기운으로 신장과 방광 자궁에 도움을 주며-상수리나무, 대나무잎, 진달래가지 등을 태운 숯, 먹, 흑토

그 외에 오색을 기본으로 하여 복합염색을 하거나 사이에 들어 있는 간색을 들

수 있다.

**자주보라계열** - 소목, 자초, 포도, 오배자

**갈색계열** - 감, 정향, 밤나무, 느릅나무, 도토리나무

**초록색계열**-쇠뜨기, 단풍잎, 썩, 칩

## ■ 천연 염료의 종류

천연염료란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섬유식물과 결합성이 뛰어난 염료로 쓰이는 색소의 기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첫째**, 화학구조에 따른 분류로 일광, 세탁, 마찰 등 외부 조건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둘째**, 색조에 따른 분류로 적색계, 황색계, 흑색계, 청색계, 녹색계, 백색계, 자주색 계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기원에 따른 분류로 식물성, 동물성, 미생물성, 광물성 색소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천연염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염색성에 의한 분류로 수천 종에 달한다.

1) **동물성염료**-코치닐, 커미즈(연지충), 퍼프라(두드럭고둥), 보라조개, 오배자, 동물의 피, 오징어 먹물, 락충드

2) **식물성염료**-식물의 잎과 꽃, 열매, 나무껍질, 심재와 뿌리등에서 추출한 염료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000여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염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은 130여종에 이르며 매염제와 염색법에 따라 100여 가지의 색채를 낼 수 있다.

식물성 염료는 한 가지 색으로만 염색되는 단 색성 염료와 한 종류의 염료라도 각종 매염제, 추출온도, 염색방법에 따라 다색성염료로 나눈다.

### 단색성염료

-직접염료: 물에 잘 녹아 식물의 잎과 꽃, 열매, 껍질, 뿌리들을 끓이거나 즙을 내어 바로 들인다.(치자)

-건염염료: 물에 녹지 않는 색소를 알칼리로 환원시켜 염색하고, 공기 중에서 산화, 발색시켜 본래의 불용성 색소로 돌아가게 염색한다.(쪽, 홍화)

-염기성염료: 베르베린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염료와 혼합하면 앙금이 생기고 동물성 섬유에는 염색이 잘 이루어진다.(황벽, 황련)



### 다색성염료

-화염계염료: 식물염료의 90%가 다색성염료로 매염제에 의해 여러색으로 변화 발색되는데 꼭두서니, 자초, 밤, 규축화, 소목, 동백, 쪽, 강황, 울금, 홍화, 등이 있다.

3) 광물성염료-대개 안료로 쓰이는 색소가 함유된 돌이나 흙, 금속으로부터 원료를 얻는다. 광물성염료는 불용성으로 섬유 표면에 정착되지 않으며 크게 안료와 염료로 나뉘고 살아있는 생명체서 얻는 유기성 안료와 무생물에서 얻는 무기성 안료로 나눌 수 있다. 색채별로 나누면 녹색계, 청색계, 적색계, 황색계, 흑색계, 백색계로 구분할 수 있다.

**무기성 안료:** 산화물 혹은 황화물로 고대에는 천연의 것을 갈아서 동굴 벽화에 사용했다. 물에 풀어 채색하면 금방 벗겨지므로 동물,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 아교에 섞어 사용한다.(공작석, 대자석, 석간주, 백토, 적토, 흑토, 금, 은 등)

**유기성 안료:** 일반적으로 수지라 부르는 것으로 용해된 염료에 조제를 가해 추출하여 수용성이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며 청색분말인 청대와 홍색분말인 연지, 코치닐, 락충, 커미즈, 오징어 먹물, 젖소오줌 동물의 뼈 등이 있다.

## ■ 천연 소재의 천

보온성, 편리함, 아름다움의 기능과 멋을 살려주는 천연소재의 천을 보면 동물성 천과 식물성 천으로 나뉜다.

- 식물성섬유-목면, 마, 모시, 삼베
- 동물성섬유-모, 명주
- 광물성섬유-석면

## ■ 매염제의 역할과 종류

매염제는 염기(금속)와 산의 중화에 의해 만들어진 중성의 금속 화합물로 염색 과정에서 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직물과 부착된다. 즉 색을 고정시키고, 금속성분과 반응하여 여러 색으로 발색하는 역할을 한다.(철분, 탄닌, 알칼리, 구연산, 식초, 요소, 단백질 등의 전통방식의 매염과 정제된 염화 제일철, 목초산탄, 초산동, 유산동, 염화알루미늄, 석산나트륨, 석쇠수 등이 있다.)

## ■ 천연염색의 염색의 과정

- ① 염색할 천을 정련한다( 염색 이전에 옷감의 풀기와 기름기, 때 등을 제거하는 과정. 보통 육십도 정도의 물에 한두 번 천을 담가 수세한 뒤 탈수하면 된다. 그것이 번거로우면 물에 하룻밤 정도를 담가둔다.)
- ② 잘게 썬 재료가 잠기도록 물을 넣고 20분간 끓여 염액을 추출한다.
- ③ 필요한 염료 양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 ④ 채에 걸러서 물을 받아 매염제를 약간 넣는다(식초는 1리터에 1큰술, 백반과 소금은 알아서 적당히 넣고, 산화철, 산화동에 따라 색을 달리할 수 있다).
- ⑤ 염액에 천을 넣고 원하는 색이 될 때까지 끓인다.
- ⑥ 염색한 천을 염액에서 꺼내 식힌 후 찬물에 여러 번 행군다.
- ⑦ 기본적으로 그늘에서 한번 말린 뒤 행군 뒤 위의 과정을 원하는 색상이 나올때 까지 반복한다.
- ⑧ 다림질을 한다.

\* 염색에 필요한 도구: 스테인리스 그릇, 비닐 장갑, 집게, 버너, 칼, 저울, 염색하기(침염을 중심으로), 믹서기





## ■ 도자기체험 ■

### ■ 도자기란?

찰흙으로 빚어서 높은 온도로 구워낸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도기, 자기라고 하며 사용된 원료는 점토, 장석, 규석, 도석 등의 무기물질이 있으며 이것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성형한 다음 열을 가하여 경화 시킨 제품을 말한다. 도자기에는 자기 석기, 도기, 토기 등이 있다.

### ■ 도자기의 유래와 세계적 역사

도자기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토기라고 하며, 그 기원은 옛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에서는 이미 BC 5000년경부터 토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 된 토기로서는 중국의 채색(彩色)토기, 즉 채도(彩陶)·흑도(黑陶)·회도(灰陶)·백도(白陶) 등이 있다. 이들 중국 고대의 토기로부터 도자기가 만들어졌다.

도자기의 유약으로는 저화도유라고 하는 800~900°C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것과 고화도유라고 하는 1,200~1,300°C의 높은 온도에서 녹는 것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예로부터 저화도유가 발달하였으며, 동양 최고의 유약은 한(漢)나라의 녹유(綠釉)라고 한다. 이것은 어두운 녹색의 구리를 발색제(發色劑)로 사용하여 만든 저화도유라고 하며, 최근 알려진 바로는 전국시대부터 이미 있었다고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이집트·시리아·이란·이라크 지방에서는 근세까지도 저화도 유밖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동양에서는 은(殷)·주(周) 시대부터 1,200~1,300°C의 높은 온도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더욱 발달하여 한·육조(六朝) 시대에는 청자 및 천목(天目)이 제작되었다. 당(唐)·송(宋) 시대에는 각지에서 동양풍의 독특한 도자기인 청자·백자·천목류의 것이 만들어져서 서양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동양의 것과 같은 도자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독일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18세기이므로 동양에 비해 서양에서 훨씬 늦게 도자기가 발달되었다.

### ■ 한국도자기의 역사

한국 토기문화의 기원은 BC6000년경부터 시작된다.

#### 1) 신석기시대

울산광역시 동삼동 패총(東三洞貝塚)에서 출토된 원시민무늬토기(原始無紋土



器)와 둥근덧띠무늬토기(圓底隆起紋土器)가 있으며, 뒤이어 끝이 뾰족하고 그릇바깥에 짙막한 줄을 이용하여 패각(貝殼)으로 무늬를 그린 빗살무늬토기(櫛紋土器)가 나타났다.

## 2) 청동기시대

바닥이 평평한 무늬 없는 토기<민무늬 토기>가 발달하였다.

## 3) 철기시대

평양 부근에 한(漢)나라의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어, 한대의 도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회도·회유도·녹유 등이 제조되었다. 이 시기 것으로 추정되어 출토된 김해토기는 삼국시대 신라토기의 모체가 되었으며, 일본의 경질도기인 수에기(須惠器)의 번조(燔造)에도 영향을 미쳤다.

## 4)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에는 북쪽에 고구려, 남쪽에 신라와 백제가 형성되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도 독자적인 도기문화를 형성하였다. 신라·백제에서는 환원염소성에 의한 회백색·회흑색의 경도 즉 신라토기가 주류를 이루어 발달하였다. 신라토기는 돌이 섞이지 않은 고운 태토로 만들어 1000°C 이상의 고열로 구운 것이며, 두드리면 금속성 소리가 날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으나 유약을 입히지 않아 흡수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 향아리·병·잔·굽다리접시·그릇 등 종류는 풍부하고, 기면에 선각(線刻)으로 문양을 그렸다. 신라토기는 5세기 초 일본에 전하여져 고치(河內)의 스에무라(陶邑)에서 경질도기(須惠器)가 번조되었다. 신라토기는 이러한 일상적인 기명 이외에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압형토기(鴨形土器)·토우(土偶), 기면에 인물이나 동물을 붙인 부장용(副葬用)의 명기류(明器類)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경주시 황남동(皇南洞)의 황남대총(皇南大塚)에서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신라토기는 꾸밈새 없는 질감(質感), 음각(陰刻)으로 된 파상문(波狀紋)·삼각문(三角紋)·평행집선문(平行集線紋)·원권문(圓圈紋)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고졸(古拙)하면서도 소박한 고대인의 정감이 넘쳐 흐르는 듯한 정신적 힘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삼국시대에는 중국 화난 고월자의 청자·흑유자 등이 수입된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통적인 신라토기 위에 녹채(綠彩)·이채(二彩)·삼채 등의 연유도, 회유를 의도적으로 입힌 회유도 등이 새로 나타났다. 기면에 연속적인 인쇄장식(印花裝飾)을 하고 그 위에 회유·연유를 입힌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라토기의 전통 위에서 만들어진 도기이다. 또 경주의 안압지(雁鴨池)와 황룡사(皇龍寺) 등지에서는 녹유와(綠釉瓦)가 대량으로 출토되며 건축장식에 연유도가 많이 이용되었다. 통

일신라토기의 특징은 중국의 금속기의 영향으로 기형과 문양이 변화되었으며, 제기적(祭器的) 성격이 농후한 신라토기에 비하여 합리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점에 있다.

#### 5)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자기의 번조가 이루어졌다. 개성(開城)에 도읍지를 둔 고려왕조는 계속되는 중국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왔는데, 자기의 경우 웨저우요·야오저우요의 청자, 루요·딩요의 백자, 징더전요의 청백자, 허난 천목, 광둥·푸젠의 도자 등 거의 중국 전역의 도자기가 들어왔으며, 개성 부근의 고려시대 무덤에서 이러한 중국 도자기가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청자·백자·흑유자·천목·철채수(鐵彩手)·철사유(鐵砂釉)·청자진사(靑磁辰砂)·화금자(畫金磁) 등의 자기가 번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청자이다. 비색이란, 물총새(翡翠) 날개의 푸르름을 비유한 미칭(美稱)이지만, 확실히 고려청자의 훌륭함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오묘한 유조(釉調)를 띠는 것이다. 고려청자의 최성기(最盛期)는 인종(仁宗)·의종(毅宗) 때이며 고려 특유의 작품을 보이는 우수한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다. 청자의 도요지로는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유천리(柳川里)와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대구면(大口面) 용운리(龍雲里)·사당리(沙堂里)가 대표지역이다. 고려청자에는 이외에도, 백토나 흑토를 상감(象嵌)한 상감청자(象嵌靑磁), 철로 문양을 그린 후 청자유를 입힌 철화청자(鐵畫靑磁), 철유(鐵釉)를 전면에 바르고 청자유를 입힌 철사유청자(鐵砂釉靑磁), 금채(金彩)를 채색한 화금청자, 진사(辰砂)를 입힌 진사청자 등이 있다. 상감청자는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고려의 독자적인 청자인데, 치밀하고 섬세한 문양이 기면에 채색되어 그 은은함과 아담한 정취의 깊이는 고려 도자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상감청자의 기법은 12세기경 절정을 이루어 고려 말에 쇠퇴하였는데 조선시대의 분청사기(粉靑沙器)에 그 기법이 전수되었으나 청자만큼 우수한 자기는 드물다.

#### 6) 조선시대

고려왕조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데 비하여 조선시대에는 민족의 독자적인 한글문자를 완성하였고 문화적으로도 독자적인 기풍을 세우려고 하였다. 도자기에서도 고려왕조는 청자가 주류를 이룬 데 반하여 조선에서는 백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작품면에서 고려청자가 단정하고 엄격함을 보이는 데 비하여 조선의 백자는 중량감 있는 자유롭고 넉넉한 도자기로 만들었다. 1392년 도자기 생산을 감독하는 사선서(司膳署, 후에 司甕院)가 설치되어, 전국에서 도자기를 생



산하는 도기소(陶器所), 자기소(磁器所) 324개소를 감독하였다. 백자는 소박한 문양이 주체이지만, 15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코발트를 수입하여 청화(靑華·남빛 무늬를 넣어 구운 자기)를 번조하였다. 초기의 청화는 명나라 초엽의 작풍을 이어 받아 당초문(唐草紋) 등을 기면에 그린 여백이 없는 도자기를 제조하였지만, 17세기경에는 여백을 많이 남긴 추초문(秋草紋)·어문(魚紋)·초화문(草花紋)·호도(虎圖) 등을 얹고 가는 선으로 그린 청화백자를 완성하였는데 중국의 청화에서도 볼 수 없는 부드러움을 느끼게 한다. 청화백자는 17세기 초에 일본에 전해져 이마리청화(伊萬里靑華)를 낳게 되었다. 청화와 함께 백자에는 백자철화·백자진사 등의 종류가 있다. 백자기면에 굵은 붓으로 용·호랑이·풀·꽃·난·대나무 등의 그림을 그려, 백자는 청화의 부드러움과는 다른 힘찬 약동감을 띠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백자만이 궁전의 집기로 사용되어 그 생산은 엄격히 감독되었으며,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분청사기가 발달하였다.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나타난 것으로 초기에는 백화장(白化粧)한 기면에 청자유를 입힌 것을 번조한 것이다. 16세기말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가마는 파괴되고 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조선의 도자기사(陶磁器史)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 ■ 도자기의 종류

### 1) 청자

청자가 제작된 배경은 옥(玉)과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 옥(玉)은 군자(君子)를 상징하며, 부귀(富貴)와 사후내세를 보장해 주는 신앙적인 의미를 지녀 영생을 의미하며 악귀를 쫓는다고 믿어 부장품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9세기경 중국의 호족(濠族)들에게 널리 퍼진 불교의 선종(禪宗)과 함께 좌선(坐禪)을 하는데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하여 차를 마시는 습관이 확산되면서, 청자를 찻잔으로 사용하며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차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길로써 마셨다. 따라서 차를 마시는 찻잔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 찻잔은 금값보다 비싼 귀중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말기 선종이 유입되면서 중국을 다녀온 선승(禪僧)들을 통하여 중국의 찻잔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청자를 만든 때는 9세기 중엽 경이었다. 청자는 오랜 고화도 경질도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 도자의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국의 독자적인 창안인 상감기술이 개발되고, 11세기 전반에 본격적 청자가 만들어졌으며 12세기 전반까지는 문양이 없는 순청자가 전성한 시기이며 이때는 문양의 공보다 청자색 그 자체와 기형의 아름다움에 주안점을 두던 시대였다.

11세기 후반이 되면 철분이 많은 자토를 물에 타서 태토 위에 먼저 무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청자를 씌우는 철회청자가 나타났다.

당시에는 고려인들의 세계가 불교적인 세계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고려청자에 담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구름과 학, 불교적 선의 세계인 연못, 버드나무, 물살을 따라 노니는 오리, 고요함과 적막함을 나타낸 들국화 같은 문화로 담기도 하였고 진사청자도 12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려청자의 제조 기법 중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상감법은 12세기 후반에 발생하였고 여성적이며 유선적이라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3세기 후반이 되면 청자색이 종래의 색으로 변하고 14세기말이 되면 탁한 회록색이 되어 청자의 전통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 2) 백자

도자기 발달과정에서 청자가 발전하여 백자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14세기 도자기는 중국으로부터 청자에서 백자 중심으로 변화한다. 당시 중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백자를 만들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왕실을 중심으로 은기(銀器)를 대신하여 백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유학을 중심으로 사대부들이 새 왕조의 중심세력을 이루면서 백자문화가 크게 성행하였다. 당시 중국의 자기(CHINA)는 유럽인에게는 중국을 CHINA(자기)라 할 만큼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우리는 중국의 화려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의 것을 찾아 독자적인 백자문화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숙하지만 이미 10세기에 백자가 발생하였고 11세기 후반이 되면 백자특유의 양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청자상감의 발달과 함께 백자에 청자토, 자토, 백토 등으로 상감하는 상감백자도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백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초기의 백자는 형체가 활달하고 당당하며 이제 백자가 조선시대 도자기의 대표적인 존재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 주었다.

백자에는 회청을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와 철화백자 등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다 백자의 큰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17C)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도예기술을 받아들여 아리타(유전) 도자기문화를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은 일본의 자기기술을 배워 18세기 초 유럽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며 거기에 소뼈를 태운 재를 첨가한 본차이나(Bone China)를 생산하게 된다.

조선의 백자는 조선 사대부의 생각이 스민 청초하고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당시 중국, 일본과 뚜렷이 대비되는 독특한 품격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장 조선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갖고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문양 용, 모란, 당초, 소나무, 매화, 학 등을 여백을 살리며 간결하게 표현되는 양식은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자연과 마주한 듯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조선백자의 특징이다.

조선 도자기라고 하면 백자라 할 조선백자는 검소, 질박, 결백함을 가치관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우리 백의민족의 상징이기도 하다.

14세기 고려후기, 고려시대를 이끌어오던 불교사회의 내세를 추구하는 관념이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현실에 치중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그전의 청자는 귀족적이며 종교적인 영향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청자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검소한 것으로 변화하며 문양이 대범하여지고 표현기법도 간략해지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상감청자의 모습은 대중화되며 분청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분청은 회청색의 몸체에 백토를 바르거나 또는 문양을 굽어내거나 산화철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한국인의 독자적인 창안에 의한 이채로운 심미(審美)감을 지니는 것이다.

15세기에서 16세기를 거치며 하얗게 분장한 면 위에 철화(鐵畵), 선각(線刻), 박지(剝地)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며 그 표현방식은 익살스러움이 있고 정돈되지 않은 듯 수더분하며, 그 형태와 문양은 자유롭고, 구애받을 것 없는 분방함, 박진감 넘치는 표현으로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미(美)의 원형을 간직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 3) 분청사기

옛날 우리의 사기장들은 대를 이어가며 평생 도자기를 만들었으나 그 생활은 무척 가난하였고 무명(無名)으로 평생 무념(無念) 속에서 자연과 같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만들며 그 특질은 도자기에 배어 꾸밈없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일본의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미감(美感)을 갖는 지배 계급들의 문화와 맞아 조선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의 좋은 차잔을 갖는 것은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써 하나의 성(城)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되며 마침내 신기(神器)로 까지 부르게 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도 공이 만드는 막사발은 보물(이도다완 井戶茶碗)이 되어 일본인들이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도자기에 대한 경모감을 갖고 그들이 데려간 도공들은 일본 도자기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그 후 조선의 분청사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도공과 가마의 상실, 사회적 변화를 거치며 점차 백자화되어가며 사라지게 되었다.

#### 4) 옹기

우리나라의 음식 중 부식과 조미료의 대부분은 발효식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민족은 이를 즐겨 먹는 민족으로 인식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민족이 즐겨먹는 발효식품인 김치를 비롯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술, 식초등을 발효시키고 저장하는 옹기는 주로 옹기인 독과 향아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옹기는 주곡과 곡식 또는 식수를 저장하는 옹기로도 널리 쓰여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야 곳곳에서 채취할 수 있는 유색토(찰흙)를 소지로 하여 식품성이 함유되어 있는 부엽토의 일종인 약토에 식물성 재를 물과 함께 개어서 잣물로 만들고, 이것을 적당한 수분(20%)이 함유된 상태에서 그릇의 안과 밖에 옷을 입힌 뒤 1,200°C 내외의 고온에서 10일 동안 구워낸 그릇을 말한다.

이 옹기는 우리의 모든 생활용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독, 푸레독, 오지, 반응기 등을 포함하여 통칭하기도 한다.

#### ■ 도자기 만드는 과정

- ① 흙으로 모양 만들기-손으로 빚거나 물레로 성형하기
- ② 그늘에서 잘 말리기
- ③ 가마에 넣고 불에 굽기(초벌구이로 800~900°C 15~25시간 정도 굽는다.)
- ④ 도자기에 그림세기기
- ⑤ 유약바르기
- ⑥ 재벌구이(1200~1300°C 20~30시간 정도 굽는다.)



## 천연염색과 도자기체험도 재밌어볼래?

2006년 4월 16일 해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천연염색과 도자기체험도 재밌어볼래?

2006년 4월 17일 달남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천연염색과 도자기체험도 재밌어볼래?

2006년 4월 18일 불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오늘은 염색과 도자기 후딱 해치우고  
4.19를 기념해야 안쓰겠나?

2006년 4월 19일 물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다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 4.19 혁명 ■

### ■ 4.19 혁명의 배경

6·25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반공”체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장기 독재를 꾀하였다. 이미 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발췌 개헌안(헌법내용 중 대통령 선출 방법만 바꾼 개헌안)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당시의 방식이 의석수가 줄어든 집권 자유당에게 불리했기 때문이었다. 또,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203 \times 2/3 = 135.333\dots$ )을 감행하였다.

1956년 부정부패와 폭력, 관권 개입으로 얼룩진 선거에서 이승만은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진보당의 조봉암 역시 30%라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승만은 조봉암을 간첩죄로 몰아 처형했다. 그리고는 언론의 활동과 국민들의 비판적 언동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독재 음모는 1960년 3.15 선거에서 극에 달해 40% 사전 조작, 투표함 교환, 조별 투표 등 갖은 부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면서 대대적으로 항거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이를 4.19 혁명이라 한다.

### ■ 4.19 혁명의 원인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3.15 부정선거와 마산시위 무차별 진압이었다. 일단 3.15 부정선거를 설명 하겠다. 3.15 부정 선거는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일단 3.15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 하겠다. 196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5세이다 이 나이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기간 중 사망할 수도 있을 나이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이것은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자연히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만약 부통령이 자유당 출신이 아닌 진보당 출신이 당선되면 그다음 권력은 자연히 이승만 정권이 아닌 진보당 정권이 잡게 되므로 부통령 또한 자유당 출신이 나와야 그 다음이 좋아지므로 이번 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 하여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부정선거를 하여 40%의 사전 조작, 투표함 교환 그리고 마구잡이로 뇌물을 보내서 결국 이기붕이 822만 표를 획득하여 118만표를



획득한 장면을 누르고 3.15선거에서 승리를 발표하자 경남 마산에서 수천명의 시민들과 학생(고등학생)들이 뛰어나와 파출소를 공격하자 경찰들이 최류탄을 발사하고 소총으로 시민들을 사살하여 수십명이 다치고 죽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다다랐을 쫘 설상가상으로 왼쪽눈에 최류탄이 박힌채 바다에 빠져 죽어있던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것이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 ■ 4.19의 과정

1960년 4월 19일 드디어 피의 화요일의 날이 밝았다. 오전 8시 30분 교문을 박차고 나온 심설동의 대광 고교생 1천여명이 종로 쪽으로 진군 하였다.하지만 그곳에서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쳐 종로 5거 쪽에서 혜화동 방면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지나가고 있을 때 고교생들의 함성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서울 문리대 학생들이 고교생들과 합류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경 바로 뒤이어 법대, 미대, 약대, 수의대, 치대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모두 3천명의 서울대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국회의사당으로 진군했다. 거의 같은 시각 옆의 동성고등학교도 1천여명이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대 2천명이, 고려대 4천명이 시위에 나섰고 9시 50분경에는 건국대 2천명이 각각 시위에 참가하였다. 오전 11시에는 동국대 2천명, 성균관대 3천명이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곳곳에서 시민들도 학생들을 따라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오전 11시 40분경 드디어 의사당 앞에 동국대생들이 도착하였다. 그리고 곧 있다가 의사당에서 다시 경무대로 목표를 바꾸어서 진군했고. 낮 12시 여학생 500명을 낀 연세대생 5천명도 시위에 합세 하였고 홍익대 1천명도 시위에 나섰다. 같은 시각 중앙대 4천명도 한강 인도교를 건넜다. 이 즈음 경기대,외국어대,단국대,국학대,국민대,서라벌 예술대도 시위에 나섰다. 또 서울대, 의대, 세브란스 의대, 카톨릭의대도 흰 옷 차림으로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숙명여대와 이화여대생 들도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은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처럼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며 동대문에서 신촌, 서울역에서 중앙청 앞까지 밀고 갔다. 게다가 시민들도 합세를 하여서 시위규모는 더욱더 커져 갔다. 결국 경찰은 다른 저지선을 포기하고 그나마 시위 규모가 적은 효자동 방면으로만 경찰을 보내고 나머지 병력을 경무대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경무대를 목표로 삼은 시위대는 경무대의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며 경무대의 3차 방어선에 다다랐을때 무장 헌병 100명을 실은 트럭들이 효자동 쪽으로 지나갔다 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후 10시 40분에 경찰들이 제 3차 방어선에서 총을 발사하였다. 십시간에 경무대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길바닥에는 7,8구의 시신이 나뒹굴고 있었다. 경찰의

발포에 움찔한 시위 대는 다시 대열을 가추어서 동국대생을 선두로 서서 다시 진군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총을 발포했고 이렇게 오후 5시 까지 경무대 3차 방어선 앞에서 경찰과 10만명에 육박하는 시위대와 밀고 당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과연 피의 대제전 이었다.그리고 오후 3시30분 경 반공 청년단 의 반공회관,이기봉의 사가 등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경 대전,대구,광주,부산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드디어 오후 5시경 무강 경찰 300명과 헌병대 등이 경무대 앞으로 기관총,소총 등으로 무장을 하고 몰려왔고 심지어는 기관총을 탑재한 장갑차 2대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시위대를 경무대에서 20분 만에 을지로 4가 까지 몰아냈다.그리고 이에 성난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하여 시위 규모가 20만 명으로 불어났지만 밤 10시에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나타나서야 비로소 시위가 완전히 진압되었다.하지만 시위가 서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대구,대전,부산,청주,포항,인천,마산,광주,춘천,영주,김해 에서도 동시다발적(동시에 자주 발생)으로 일어났다.

#### ■ 4.19 혁명의 결과

4. 21. 소요사태 책임지고 국무위원 총사퇴
4. 22. “부정선거 다시 하라”에서 “이승만 물러가라”로 구호 바뀌며 전국적 시위
4. 25. 서울시내 대학교수 258명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며 가두시위
4. 26. 서울시민 3만 명 이승만 해임을 요구하며 시위, 수송. 국민학교생 시위  
이승만 해임 담화 발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  
국회 3.15 선거 무효, 재선거 실시, 내각제 개헌, 총선거 실시 결의
4. 27. 남녀 63개 고교대표 257명 계엄사령부 방문하여 7개 요구 조건 합의  
전국 대학생 대표 학교 복귀 결의, 질서 유지반 편성 후 경찰에 배치
4. 28. 이기봉 일가 집단 자살
5. 3. 대학생들 학도호국단 해체, 학생회 탄생. 학원 민주화 운동 전개
5. 19. 4.19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5. 29. 이승만 부부 하와이로 망명
7. 29. 민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 ■ 4.19 혁명의 의미

4.19 혁명의 의미는 바로 국민 스스로가 독재정권을 몰아내어 스스로 자유를 찾은 일이 가장 뜻 깊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1945년 8월 15일처럼 나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유를 얻어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힘을 세계에 널리 알



릴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4.19 혁명의 소식을 듣고 세계각국의 반응이다.

## ■ 세계 각국의 반응

터키의 청년, 학생은 4.19혁명을 숨죽이며 지켜보다 4월 28일 “우리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국민들보다 어찌 못하랴!” 라고 외치면서 독재자 멘델레스를 축출(몰아냄)하기 위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그들은 이스탄불 거리에 나타난 계엄군 탱크 앞에 연좌한 채 한국 학생들의 거룩한 희생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

프랑스의 「마치」지 극동 지국장 스무라씨는 “4.19로 인해 일본인은 처음으로 한국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제일 한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기고하였다.

드 프레 파리 시의회 의장은 5월 10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는 최근 한국 학생들이 보여 준 바와 같은 그 고귀한 정신과 그들의 용기, 그리고 애국심에 크나큰 존경심을 품고 있다. 이에 나는 프랑스 국민의 축의를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다.”

영국의 「런던 타임스」는 4월 27일 “마치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과 같았다. 스스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다..... 역사적인 지난한 주일은 외국의 비평가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한국인이 자유 정부를 향유할 자격을 가지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도하였다.

## ■ 풍 물 ■

### ■ 풍물의 의의

풍물을 종교적 관점에서는 '굿'·'매굿'·'地神밧기'·'마당밧기'라 하며,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레'라 하고, 풍악(風樂)이나 풍류(風流)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풍장'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풍물에는 과거 고대 사회에서의 공동체적 문화전통이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옛 농경조직은 협력결사체인 두레와 품앗이제도로 되어 있었다. 두레생활의 특징은 공동노동·공동가무·공동회식이었으므로, 농악의 형태도 집단적 예능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두레의 농경방식은 노동·노래·춤 등을 삼위일체로 행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노동이나 집단적인 춤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생되었다. 이러한 풍물은 공동체의로서의 동제굿을 비롯하여, 공동노동으로서 두레와 품앗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큰 역할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다. 풍물의 밑바탕에는 주당풀이라든가 동제굿, 돌돌이처럼 무속성(巫俗性)이 짙게 깔려 있다. 풍물의 복식에 있어서 고깔과 띠가 있고, 춤에 있어서는 나비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된다.

풍물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적 놀이요, 집단의식에서 싹튼 예능양식으로서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발달한 문화의 한 형식이다.

서민계층에서 자라온 풍물은 비록 고상하고 우아한 놀이는 아니지만, 흠냄새가 물씬 나고 소박하며, 천재(天災)와의 싸움에 뛰어드는 농민들의 힘찬 의지와 패기가 넘쳐흐르고 있다. 즐기차게 일해야 하는 생산자에게는 힘이란 제일 고귀한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주고, 반복되는 고된 노동에 흥을 불어넣어 피로를 잊게 함으로써 일에 의욕을 북돋아 주던 것이 바로 농악이다.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신분에 대한 갈등 역시 컸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해소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데 풍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1) 공동체 사회의 놀이마당 풍물놀이

국립 국악원과 국악 교육협의회에서는 1993년 국악 교육내용 통일안을 마련해 농악을 풍물굿에서 풍물놀이로 바꾸었다. 농악이란 말은 일제 때 일본의 학자가 1931년에 쓴 <조선의 년중행사>라는 책에서 처음 쓰였다. 풍물놀이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만큼이나 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풍물놀이에 대한 용도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동이전이나 삼국사기 등에서 고려시대부터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이전에는 “오월이면 농사를 마치고 잔지



를 벌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는 “임금이 군사들에게 북소리와 나발 소리를 들으면 모두 나가서 싸우기를 권하였다”라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풍물놀이에 많이 보이는 진법에서도 드러난다.

## 2) 넘도 보고 뽕도 따는 풍물놀이

풍물놀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에 관한 사회적인 습관, 즉 전통적인 세시 풍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요즈음에는 농민들이 생기를 잃었는데 예전에는 마을마다 으레 풍물패가 있었다. 명절이 돌아오면 마을은 잔치를 했다. 명절에는 풍물놀이가 최고다. 한복을 입고 저마다의 악기를 치면 신기하고 흥겨웠다. 풍물패는 집을 돌아다니며 걸립굿을 했다. 마을의 자랑거리는 풍물패였으며 풍물패가 놀면 남녀 편견이 없어졌다. 농사일이 바쁠 때에도 풍물놀이가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오늘날에는 풍물놀이를 재구성해 만든 사물놀이가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아닌 무대 예술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풍물놀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경기, 호남, 영남, 영동 등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장단의 순서가 조금씩 다르고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느린 장당에서 빠른 장단으로 변한다. 소리광대의 한을 그린 영화 <서편제>에 주인공의 한사람으로 출연해 풍물놀이의 현실을 나타냈다. 풍물놀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간다. 마찬가지로 농촌도 생기를 잃어간다.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서 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떠난 풍물놀이, 알맹이는 빠지고 겉모양만 남은, 화려한 문화의 맥이 끊기고 변질되는 것이 아닐까? 삭막한 농촌에서 흥겨운 풍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꿈꾸어 본다.

## ■ 풍물의 역사

풍물은 농악을 가리키는 말로, 농악을 연주하는 것을 '풍물 천다'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풍물은 팽과리·북·장구·징과 같은 악기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구'·'풍물'·'풍장'·'두레'·'걸궁'·'걸립' '금고'(金鼓)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풍물을 군악(軍樂)으로 보아 '군고'(軍鼓)라 일컫기도 한다.

이와 같이 풍물은 그 명칭이 다양한 종합적 예능이다. 풍물의 기원은 노동설(勞動說)과 제의설(祭儀說) 등 두 가지로 집약된다. 노동설은 풍물이 농경의례인 생산과 풍요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고, 제의설은 농악이 제천의식인 소도(蘇塗)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따라서 풍물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투쟁의 철학에서 잉태된 것으로서, 그 형식은 각종 제의와 전투행위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풍물의 시원(始源)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문헌적 기록은 없으나, 수서와 『삼

국지』위지 동이전에 풍물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馬韓에서는 5월에 파종이 끝나면 항상 귀신에게 제를 올렸다. 마을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주야로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과 음식을 먹었다. 그 춤은 여러명이 한 줄을 이루어 몸을 구부리기도 하고 허리를 펴기도 하며 손과 발을 서로 맞추는 것이었다.

절주(節奏)는 마치 중국의 탁무(鐸舞)와 비슷하였다. 10월에 농사가 끝나도 그와 같이 하였다." 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풍물은 삼국 시대에 이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제현의 해시(解詩)에 전하는 '사리화' 같은 농부가 뿐만 아니라, 고려 25대 충렬왕이 일반 농악에 관심이 커서 장려한 일도 있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세조 등은 농악과 농가에 대한 관심이 있기에 '선농가자'(善農歌者)를 불러 연주하게 한 일이 있고, 농가구(農歌)를 도와 주었으며 가기(家妓)로 하여금 농가를 장려하게 하였다. 성종도 민요와 농가를 잘 이해하였고 육성시켰으며, 고종은 경복궁 수축공사 때에 밤마다 농악대회를 개최하여 부역인들의 위안을 겸하여 농악육성에 힘썼다.

## ■ 풍물의 종류

풍물은 공연하는 목적·계기·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보면, 당산굿·마당밧이·걸립굿·두레굿·판굿이 있고, 그 밖에 기우제굿·배굿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1) 당산굿

마을굿에는 무당의 가무, 제관의 독축헌잔, 굿패들의 풍물이 따르는데, 이처럼 마을굿에서 치는 풍물을 '당굿' 또는 '당산굿'이라 한다.

### 2) 마당밧이

굿패들이 마을 수호신인 당신을 모시고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집돌이 의식을 하며 치는 풍물로, 지신밧기·뜰밧이·답정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집돌이 외에 정초에 집가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3) 걸립굿

걸립패들이 마을마다 돌며 집집마다 들러서 고사를 지내고 돈과 쌀을 거두며 치는 풍물로 일명 '걸궁'이라 한다. 걸립은 목적에 따라 절에서 시주를 걷는 절걸립, 다리를 짓기 위해 걷는 다리걸립, 그 외에 서당걸립·나루걸립 등이 있다.



#### 4) 두레굿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김매기를 할 때, 또한 호미걸이와 같은 축제를 벌일 때 치는 풍물로, 일명 '두레풍장'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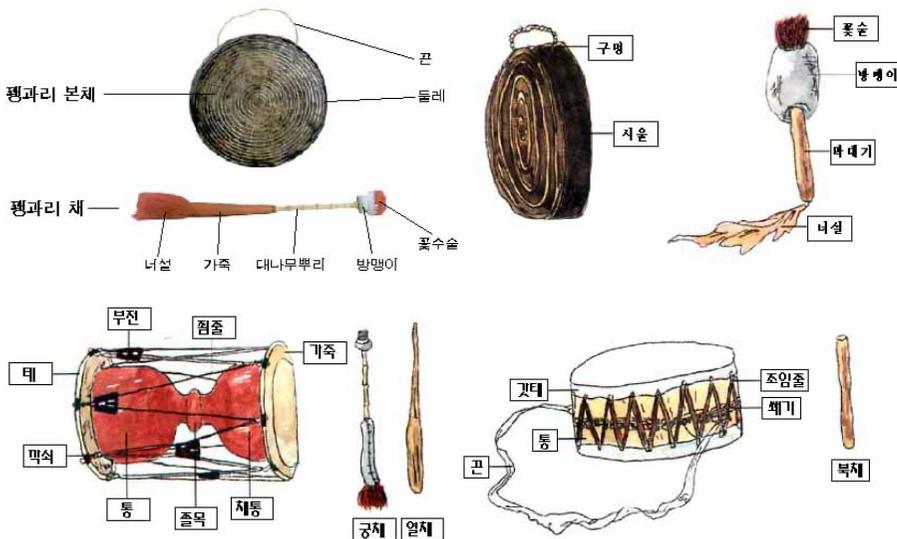
#### 5) 판굿

굿패나 걸립패·두레패와 같은 농악대가 마당에서 마을사람들에게 구경시키기 위하여, 온갖 구색을 갖추고 순서를 짜서 노는 풍물을 말한다.

### ■ 풍물의 편성

#### 1) 악기

풍물에 쓰이는 악기는 타악기인 팽과리·징·장구·북·소고와 관악기인 호적·나발이 있다. 악기는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경기 북부에서는 바라를 쓰며, 영동지역에서는 소고를 소고와 범고로 나누기도 한다. 영남지방에서는 땡각이 쓰이기도 한다. 풍물은 팽과리가 주가 되며, 팽과리 제1주자인 상쇠가 농악대를 지휘한다.



#### 2) 편성

풍물패의 편성은 기를 드는 기수, 악기를 연주하는 잽이, 탈을 쓰고 여러 가지 배역으로 분장하여 춤추는 잡색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농악대는 고장에 따라 기수가 앞서고 다음에 잽이가 따르고, 그리고 맨 뒤에 잡색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풍물에 쓰이는 기는 영기와 대기가 있는데, 영기는 작은 기쪽에 '令字'를,

대기의 기폭에는 기의 종류에 따라 용·정방형의 도안·신상·신위를 쓰는데, 이를 '神農遺業' 혹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꿩과리쟁이·징쟁이·장구쟁이·북쟁이·소고쟁이 순으로 행렬하며, 잡색은 고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동에서는 무동을, 경기에서는 무동·사미·양반광대를, 남쪽지역에서는 대포수·조리중·양반·할미·각시·창부·무동 등 여러가지를 쓰기도 한다. 두레풍장에는 잡색이 없다.

## ■ 풍물의 지역적 분포

### 1) 경기농악

경기·강원·영서·충청도 북부지역에 전승되며, 안성·평택 등지가 중심이 된다. 경기농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락이 분명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2) 영동농악

강원도 대관령 동쪽지방에 전승되며, 강릉·삼척 지방이 중심이 된다. 영동농악은 소박·단순하고 향토색이 짙다.

### 3) 호남우도농악

전라도의 서남지방에 전승되며, 정읍·장성 지방이 중심이 된다. 호남좌도농악은 쇠가락·춤사위·판굿놀이의 변화가 다양하고 흥겹운 점이 특징이다.



### 4) 호남좌도농악

전라도 동북지방에 전승되는 농악으로, 진안·장수·완주·임실·순창·남원·곡성·구례·화순 등지가 중심이 된다. 호남좌도농악은 호남우도농악과 경기농악의 특색을 고루지녀 음악과 춤사위놀이가 완벽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 5) 경남농악

경남지방에 전승되며, 함안·진주·삼천포 등지가 중심이 된다. 경남농악은 자진가락이 많고, 씩씩하며 활기찬 점이 특징이다.

### 6) 경북농악

경북지방에 전승되며, 김천·청도·영주 등지가 중심이 된다. 경북농악은 곳곳하고 향토적인 고박(古朴)함을 간직하고 있다.



## ■ 풍물의 지역별 특징 및 종류

### 1) 경남 진주 삼천포 12차 매구굿

#### 가. 들어가는 말

12차 매구굿(풍물)의 유래는 김한호에 이어 박경호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황일백, 문백운으로 이어졌다. 황일백 상쇠가 진주 풍물을 이끌어 왔으나 1976년 작고하였고, 뒤이어 1980년 양산출신의 이영우가 이어받았다. 삼천포 풍물의 문백운도 1981년에 작고하였으며, 뒤이어 진주출신의 이영우도 1992년 5월에 작고하였다.

#### 나. 특색

① 진주 삼천포의 매구를 군악이라고 할 만큼 군악적 요소가 많이 보이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옛날 싸움터에서 볼 수 있는 영기, 나발, 전립 등이 쓰인다.

-옛날 군사훈련이나 싸움에 쓰이던 오방진치기와 같은 진법놀이나 군인이 길을 가면서 치는 가락이란 뜻의 길군악 등이 쓰인다.

-바닷가에 접하여 외적의 잦은 침략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농민을 쉽게 동원하기 위해 매구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② 군악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걸립적인 요소, 놀이적인 요소, 마을굿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이다.

③ 가락은 석인 박자로 만들어진 가락과 굿거리가 많이 쓰이지 않고 맏고 푸는 기교가 작으나, 가락을 빨리 모으는 경우가 많아 힘이 있고 활달하다.

④ 버꾸들이 몸을 공중으로 날려 도는 자반뒤집기가 뛰어나다.

⑤ 진주지역과 삼천포 지역의 매구의 판굿과 가락, 전승 계보가 조금씩 다르게 내려왔으나 요즘에는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 다. 12차 매구굿의 짜임

-1차 : 오방진풀이

-2차 : 어울림굿 놀이(얼림굿 놀이) -다드래기

-3차 : 버꾸놀이(삼채 덧뵈기)

-4차 : 길군악

-5차 : 영산 다드래기 -다드래기

-6차 : 멋버꾸놀이

-7차 : 등맞이굿 -다드래기

-8차 : 앓은버꾸놀이 -다드래기

- 9차 : 호호굿
- 10차 : 개인 영산굿 놀이
- 11차 : 별굿놀이
- 12차 : 허튼굿(해침굿)

## 2) 경북 금릉 김천 빗내 진굿

### 가. 들어가는 말

빗내는 김천시에서 동쪽으로 12km, 선산읍에서 서쪽으로 14km 떨어진 사달산 기슭에 자리잡은 마을로, 빗내는 경상북도 금릉군 개령면 광천동의 다른 이름이다. 삼한 시대에는 감문국이 있었고, 감문국의 나라 제사와, 잣은 물난리를 막으려는 풍년제가 마을굿의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마을굿은 음력 1월 16일이다. 빗내 진굿은 단순한 농사굿이 아니라 '빗신'과 전쟁에서 유래하는 진굿으로 전해져 내려온 곳이다. 빗신굿은 아주 옛날부터 한 해에 한 번씩 해오다가 삼 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고 60년 전부터 10년마다 하다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풍물놀이와 동제가 없어지고 약간의 악기만 남게되었다. 요즘에는 금릉군이 풍물 시범 마을로 지정되면서 다시 빗내 진굿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 나. 특색

- 경상도 내륙 지방의 전형적인 풍물굿이다.
- 풍물굿의 군악적인 영향이 아주 강하다.
- 3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상쇠의 계보가 뚜렷하다.

### 다. 굿의 짜임

- |            |            |
|------------|------------|
| ① 골메구(길굿)  | 4가락(4마치)   |
| ② 입장굿      | 6가락(6마치)   |
| ③ 정저굿      | 8가락(8마치)   |
| ④ 반죽굿      | 8가락(8마치)   |
| ⑤ 도드래기     | 12가락(12마치) |
| ⑥ 영풍굿      | 12가락(12마치) |
| ⑦ 오방진      | 8가락(8마치)   |
| ⑧ 판굿       | 12가락(12마치) |
| ⑨ 채굿       | 12가락(12마치) |
| ⑩ 영산 다드래기  | 18가락(18마치) |
| ⑪ 진풀이(진굿)  | 4가락(4마치)   |
| ⑫ 상사굿(지신굿) |            |



### 3) 전라 우도 이리 풍물굿

#### 가. 들어가는 말

호남 우도굿은 옛 전라 우도 지역인 전라도 서부의 평야지역의 널리 전승되고 있으며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악대의 짜임, 옷차림, 연기 따위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가락이나 내용은 서로 비슷하다. 호남 우도굿을 잘 이어받은 전라도 서부의 평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판소리에 의한 농민 공동체 문화, 논메기 노래, 육자배기 같은 놀이와 민요 등이 뛰어나게 발달하였다. 옛날부터 마을굿이 잘되던 이리의 새실 마을에서는 김제, 정읍 등지에서 전문적으로 우도굿을 배운 잽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농악단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리 우도굿의 특징은 상쇠의 부포놀이가 매우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소고춤의 기법이나 진풀이가 다양하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비교적 느린 가락을 많이 쓰며, 가락 하나 하나를 매우 치밀하게 번주하여 소리가 다채롭다. 풍류굿과 삼채굿에서는 악절마다 맺고 푸는 기법을 쓰는 등 가락이 구성지고 유장하며 기교가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다.

#### 나. 굿의 짜임

##### ① 문굿

-달어치기

-멍석말이(덕석말이, 뿔뿔말이진, 달팽이진)

##### ② 샘굿

##### ③ 들당산굿

-질굿

-고사굿

-안바탕

-미지기굿

-개인놀이

-인사굿

##### ④ 마당밧기

-마당굿

-샘굿

-조왕굿

-철용굿(장독굿)

-노적굿

-고사굿(성주굿)

#### 4) 전라 좌도 진안 중평굿

##### 가. 들어가는 말

좌도 지역에서는 마을 두레굿이 잘 전해오는 편이어서, 김봉열 선생님이 치는 가락은 다른 가락과 섞이지 않고 투박하고도 예스러운 멋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굿으로 인정받고 있다. 햇볕에 검게 탄 투박한 손으로 신명나게 쟁과리를 치는 순박한 노상쇠의 가락은 보는 이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전라 좌도 진안 중평 풍물굿은 판굿이다. 판굿은 마당밧이와 걸궁굿, 파접례, 장원례 이고, 마지막 순서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대동굿이며 대부분 밤에 행해졌다.

##### 나. 특색

- 품앗이굿에서 늦은삼채로, 호호굿에서 각정굿으로 넘어가는 때와 같이 가락이 서로 연결되어 넘어가는 때를 빼고는 모두 어름굿으로 시작한다.
- 가락은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이어져 가장 빠른 두마치로 끝난다. 여기서 두마치로 끝나는 것은 좌도 풍물굿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노래로 말하자면 뒷소리 부분에 해당한다.
- 이른바 소쩍새 가락이라고도 하는 영산은, 영산의 신께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려줌으로써 풍년을 바라는 풍농기원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갓은 열두마치와 호호굿에서 보이는 석인 박자는 정확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을 받는 청신의식에 쓰이는 어름굿과 더불어 판굿에 있어서의 제의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다. 굿의 짜임

- ① 어름굿…두마치…인사굿
- ② 풍년질굿…문굿…넘는가락…두마치
- ③ 어름굿…갓은열두마치…외마치…두마치…인사굿
- ④ 세마치…사오육마치…넘는가락…두마치
- ⑤ 일곱마치…일곱마치 도드래미…넘는가락…두마치
- ⑥ 여덟마치…여덟마치 도드래미…넘는가락…두마치
- ⑦ 아홉마치…아홉마치 도드래미…넘는가락…두마치
- ⑧ 어름굿…품앗이굿…두마치
- ⑨ 늦은 삼채…늦은 삼채 도드래미…외마치…두마치
- ⑩ 어름굿…호호굿…호호굿 도드래미…각정굿 내드림…각정굿 각정굿 도드래미…두마치
- ⑪ 어름굿…홀영산…접영산…영산다드래기…두마치







6) 별달거리

쇠	갠	갠	갠	갠지갠	갠지갠지갠지갠	갠지갠	갠지갠	갠지갠지갠지갠				
장고	덩	덩	궁따궁	궁따궁따궁따궁	궁따궁	궁따궁	궁따궁따궁따궁					
북	둥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두	두
징	징			징		징	징	징			×10	

7) 대사

하늘보고 별을따고 땅을보고 농사짓고

쇠	갠	갠	갠	갠지갠	갠지갠지갠지갠			
장고	덩	덩	궁따궁	궁따궁따궁따궁				
북	둥	둥	둥	두	둥	두	두	두
징	징			징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쇠	갠	갠	갠	갠지갠	갠지갠지갠지갠			
장고	덩	덩	궁따궁	궁따궁따궁따궁				
북	둥	둥	둥	두	둥	두	두	두
징	징			징				

달아달아 밝은달아 대낮같이 밝은달아

쇠	갠	갠	갠	갠지갠	갠지갠지갠지갠			
장고	덩	덩	궁따궁	궁따궁따궁따궁				
북	둥	둥	둥	두	둥	두	두	두
징	징			징				

어둠속에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 ~

8) 덧뵈기

쇠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장고	덩	따	궁	따	궁	따	궁	
북	둥		둥		둥		둥	
징	징			징				×4

9) 범구놀이

쇠	개	갯	개	개	개개	개개	개개	개개	개개
장고						따	궁	궁	따
북						둥	둥	둥	둥
징						징			

쇠	개	갯	개	개	개개	개개	개개	개개	개개	
장고	덩	따	따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북	둥	둥		둥	둥		둥	둥		
징	징									×8

쇠	개	갯	개	개	개개	
장고	덩	따	따	궁	따	궁
북	둥	둥		둥	둥	
징	징					×12

쇠	개	개	개	개	개개	
장고	덩	따	따	궁	따	궁
북	둥	둥		둥	둥	
징	징					

10) 쌍진놀이

쇠	개	개	개	개개	개개	개개	개개	
장고	덩	덩		덩	따	궁	따	
북	둥	둥		둥	둥	둥	둥	
징	징			징		징		

쇠	개	개개	개	개개	개	개개	개	개개	
장고	덩	따	궁	따	덩	따	궁	따	궁
북	둥	둥		둥	둥	둥	둥	둥	
징	징			징		징		징	×4

쇠	개	개개	
장고	덩	따	궁
북	둥	둥	
징	징		×4

11) 맺음가락

쇠	개	개개	
장고	덩	따	궁
북	둥	둥	
징	징		

쇠	개	개개	
장고	궁	따	따
북	둥	둥	



징	징	×5	
쇠	갯 갯 갯	갯 갯 갯	
장고	궁따따궁따따	궁따따궁따따	
북	둥 둥	둥 둥	
징			×10

쇠	개개개개개		
장고	궁따따궁따따	궁따구궁따따	
북	둥 둥	둥 두둥	
징		징	×4

쇠	개개개개개	
장고	궁따구궁따따	
북	둥 두둥	
징	징	×4

쇠	개개개개개	개개개개개	개개개개개	개개개개개
장고	궁따구궁따구	궁따구궁따구	궁따구궁따구	궁따구궁따
북	둥 두둥 두	둥 두둥 두	둥 두둥 두	둥 두둥
징	징	징	징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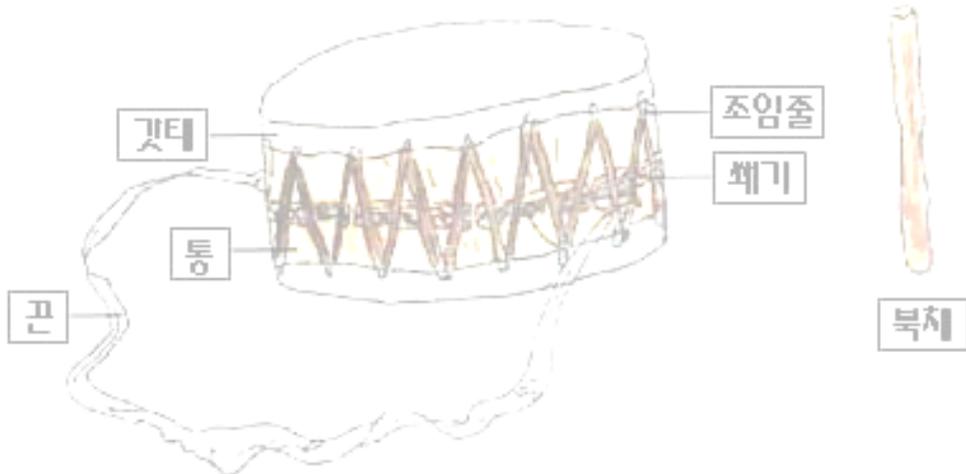
쇠	개개	개개	개개	개 ~
장고	더궁	더궁	덜 덜	덜 ~
북	두둥	두둥	둥 둥	둥 ~
징	징	징	징	징 ~

# 바로 이것이 우리소리여, 그자?

2006년 4월 20일 나무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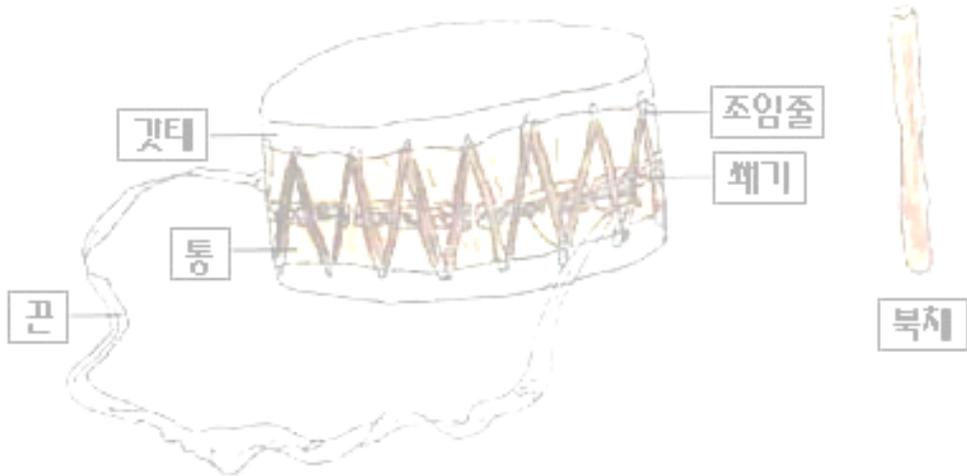


# 잘 듣고 허벌나게 연습하면 할 수 있당께

2006년 4월 21일 쇠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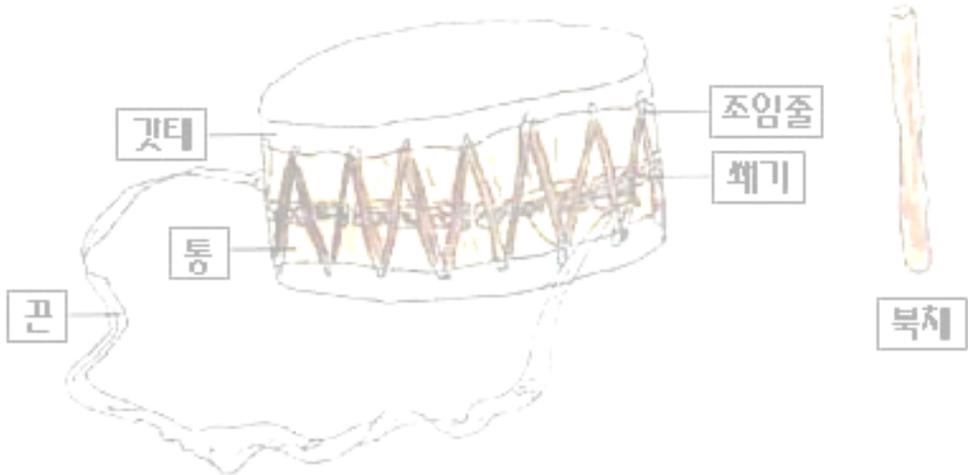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두 손으로 무릎 치며 '덩덩 쿵따쿵~'

2006년 4월 22일 훔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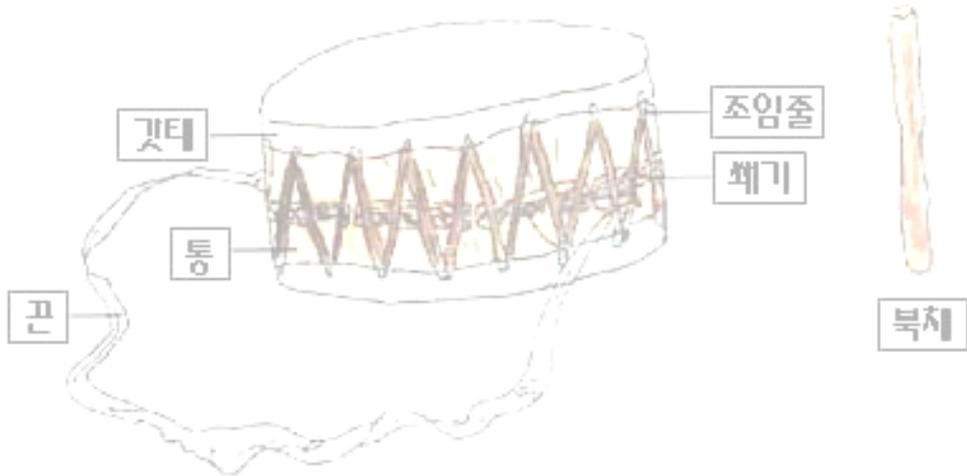


# 대접과 손가락만 있어도 '당 당 당 다다당~'

2006년 4월 23일 해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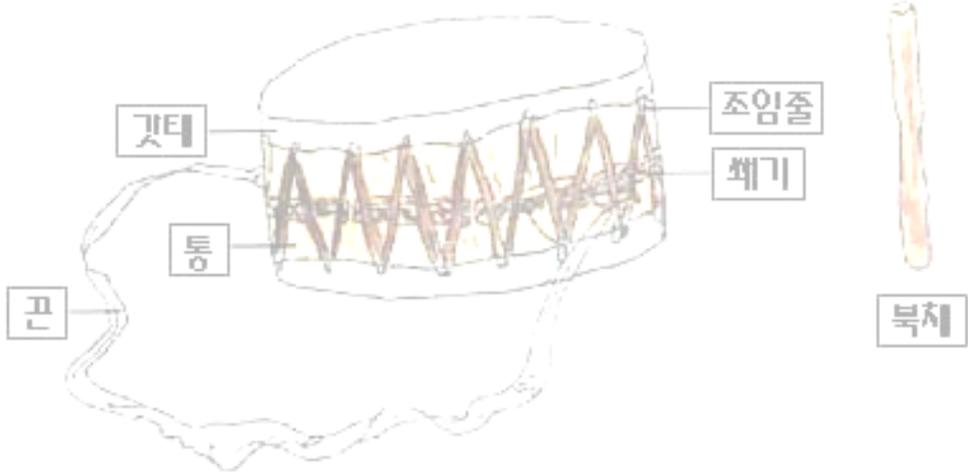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팔다리는 아파도 이제 제법 소리가 난당께!

2006년 4월 24일 달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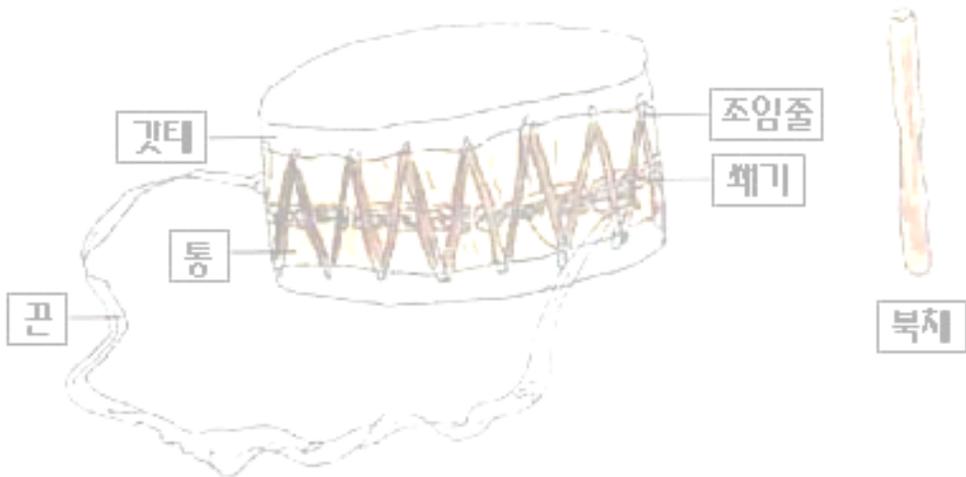


시방 우리가 풍물하는 거 맞냐?  
아따, 소리 한 번 좋~다!

2006년 4월 25일 불날 날씨:

오늘 누굴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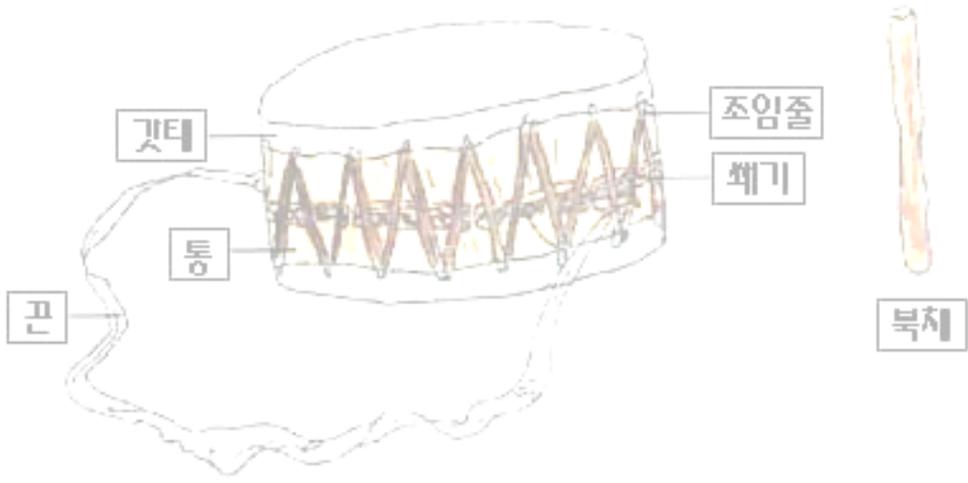
내일은 또 뭘 할라고 그래쌌냐?

# 그 동안 뭘 배우고 느꼈는지 풀어볼까나

2006년 4월 26일 물날 날씨:

오늘 누구 만나 뭘 했대냐? 싸게싸게 적어보랑께~

기억에 남는 거시기는 뭐시여?



내일이면 집에들 가겠다. 한마음공동체와 작별인사 해야재~





# ■ 갯벌 ■

## ■ 갯벌의 정의

갯벌이란 조석의 차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갯가의 넓고 평평한 생긴 땅으로 연안습지의 일부분이다. 습지보전법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연안습지는 간조와 만조 차이로 드러나는 해안의 공간으로 내륙 습지와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연안습지는 해안의 바위해안, 모래해안, 갯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갯벌이 그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만조 때에는 물 속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갯벌은 육상과 해양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생태계가 접하는 곳으로 두 생태계의 완충작용뿐만 아니라 연안 생태계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 ■ 갯벌의 역할

### 1) 갯벌의 능력

미국 조지아대 오덤(Odum) 교수팀은 갯벌이 지닌 정화능력을 조사한 결과, 갯벌 1ha는 하루에 BOD 21.7kg을 정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원규 박사(한국환경개발연구원)는 이 계산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동양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간척 지역의 갯벌 2만ha는 하루 1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40개와 같다고 밝혔으며, 이는 새만금 유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추정치 1백56t)의 무려 28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다.

### 2) 갯벌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

갯벌은 인간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들 편익에는 수산물생산, 수산생물의 서식지, 생태계 균형, 심미적 요인, 태풍 감소 등이 포함된다. 갯벌 생태계의 가치는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갯벌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류 생산 및 서식지 기능이다. 갯벌은 수산물에 대한 상당한 잠재적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갯벌의 생산성은 육상의 생산성보다 9배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의 어류 생산성이 에이커당 10t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둘째, 오염정화 기능이다. 갯벌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을 따라 여러 도시와 산업지역이 형성되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갯벌의 정화 기능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심미적 기능이다. 갯벌은 사람들에게 사냥, 낚시, 아름다운 경치 및 해수욕장등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는 이 심미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미국의 경우 이 부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홍수 조절 기능이다. 갯벌은 그 지역의 수계흐름에 영향을 준다. 갯벌은 홍수에 따른 급속한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여 물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러보낸다. 또한 갯벌은 단기간의 홍수량을 조절하여 홍수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킨다.

다섯째, 폭풍 조절 기능이다. 연안 갯벌은 태풍이 연안 가까이 오면 따라 태풍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갯벌은 태풍으로부터 개발지역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안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홍수 조절 및 태풍 조절 기능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미시시피강 하류에 위치한 루이지나주의 경우 홍수 조절 및 폭풍 조절 기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갯벌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대부분은 공공편익과 관련이 깊어 비상업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갯벌의 사회적 기여는 갯벌의 공익적 기능에 근거하고 있다.

## ■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

### 1) 갯벌에 서식하는 동물

-갯지렁이류: 우리나라의 갯벌에서는 참갯지렁이, 흰이빨참갯지렁이,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 바위털갯지렁이, 털보집갯지렁이, 괴물유령갯지렁이, 제물포백금갯지렁이 등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체동물: 우리나라 갯벌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종류로는 백합, 피조개, 고막, 바지락, 가무락, 맛조개, 동죽, 개량조개, 굴, 홍합, 참고둥, 큰구슬우렁이, 대수리, 낙지, 주꾸미 등이 있다.

-갑각류: 갑각류에는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종이 대단히 많다. 대표적으로 보리새우, 대하 밀새우, 꽃게, 민꽃게, 밤게, 칠게, 농게, 썩, 썩붙이, 따개비, 바위게 등이 있다.

-극피동물: 우리나라의 갯벌에서는 아무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긴팔거미불가사리, 가시닷해삼류 등이 흔하게 보이며 재생력이 강하다. 특히 우리나라 조간대 하부의 모래펄 속에 가시닷해삼이 대단히 많이 나는데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종이다.

-자포동물: 산호, 해파리, 히드라, 말미잘 등의 자포동물(刺胞動物)은 바다에 살며 히드라충류의 일부만 기수나 민물에 산다. 갯벌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종류로는 측해변말미잘, 담황줄말미잘, 바다선인장, 바다조름류, 히드라충류 등이 있다.

## 2)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는 바다새들

-도요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섭금류로는 민물도요, 흰물떼새, 개꿩, 왕눈물떼새, 흑꼬리도요, 붉은어깨도요, 뒷부리도요, 청다리도요, 큰뒷부리도요 등이 있다. 도요새는 부리와 다리 그리고 목이 길다.

-물떼새류: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봄에 우리나라를 거쳐 다시 번식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휴식이나 에너지의 보충을 위하여 가을철과 봄철에 우리나라에 들렀다 가는 통과새 들이다.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땡기물떼새, 꼬마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개꿩 등이 있다.

-갈매기류: 우리나라에는 19종의 갈매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위에 떠다니는 고기나 죽은 고기, 혹은 내장 따위를 먹는다. 하지만 갯벌을 찾는 갈매기들은 다양한 종류의 갯벌 생물들을 잡아먹는다. 종류는 제비갈매기, 재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갯이갈매기, 검은머리 갈매기 등이 있다.

## 3) 갯벌의 식물

갯벌 생태계 내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생산자인 식물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조선이나 그보다 높은 장소에 번식하는 염생식물과 조간대를 중심으로 번식하는 대형 해조류, 모래나 펄 바닥의 표면에 착생하는 미소 저서조류 그리고 만조 때 갯벌 위의 표영 환경에 존재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그것이다.

-염생식물: 염분이 있는 땅에 사는 식물을 일컬어 염생식물이라고 한다. 종류는 통통마디, 해홍나물, 나무재, 칠면초, 갯개미취, 강피, 갯는쟁이, 갈대, 천



일사초 등이 있는데 순군락이나 혼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가운데 통통마디가 선구적인 개척자 식물이다.

-대형 해조류: 대형 해조류가 고착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경성 기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갯벌에서는 암반 지대에 비해 종류가 훨씬 단조롭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에는 주로 녹조류에 속하는 구멍갈파래, 파래류, 갯털말 등과 홍조류에 속하는 김과 꼬시래기 등이 있다.

-미소 저서 조류: 펄갯벌 조간대에는 부착할 만한 경성 기질이 없고 퇴적층이 물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대형 해조류의 서식이 부적합한 반면 미소 조류의 서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펄 조간대의 미소 조류는 규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밖에 남조류나 편모조류가 같이 나타나거나 대체되기도 한다. 부착성 미소 조류는 갯벌 퇴적물의 표면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미경적 크기의 1차 생산자이다. 이들은 규조류 중에서도 주로 우상 규조목에 속하며 파랄리아, 나비쿨라, 니치아, 암포라, 코코네이스를 비롯하여 많은 속이 알려져 있다.

-식물 플랑크톤: 갯벌 생태계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역할은 외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경기만 모래펄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보면 저서 규조류에 섞여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두루 출현하는 내만성의 스킨레토네마(Skeletonema)나 부유성의 니치아 등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발견된다.

## ■ 갯벌의 분포

우리나라 서·남해안에는 약 2,393km<sup>2</sup>의 갯벌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국토면적의 2.4%에 해당된다. 그 중 서해안 지역에 전체 갯벌면적의 약 83%인 1,980km<sup>2</sup>가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남해안에 산재되어 형성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35%, 충남 13%, 전북 5%, 전남 44%, 경남·부산 3%로 인천·경기지역 및 전남지역에 우리나라 갯벌의 대부분인 80%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 생각거리 혹은 추억거리는 언제라도 메모 ■





■ 생각거리 혹은 추억거리는 언제라도 메모 ■





■ 생각거리 혹은 추억거리는 언제라도 메모 ■





■ 생각거리 혹은 추억거리는 언제라도 메모 ■





## ■ 함께 부르는 노래 ■

### ■ 푸른 웃음 담긴 우리의 신명으로

조금 힘이 든다고 포기한다면 우린 결코 청춘일 수 없네  
나와는 쫘 다르다고 돌아선다면 우린 결코 하나 될 수 없네

포기하지 마 처음 다짐한 약속을 돌아서지마 이 길이 그리 멀지만은 않아  
마음을 열어 삶과 투쟁이 힘겨울수록 손을 잡아봐 느껴지는 벗들의 벽찬 숨소리

애국의 가슴하나로 부딪혀가자 절망도 두려움도 던져버리고  
칠천만 가슴하나로 달려 나가자 푸른 웃음 담긴 우리의 신명으로

### ■ 벗들이 있기에

돌이켜 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벗들이 없인 얘기할 수가 없네  
더불어 항상 참된 삶이 무언가 고민해온 벗들이 있기에 나도 있다오

벗들이 있기에 투쟁은 더욱 아름다운 것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 와있네  
벗들이 있기에 청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린 활짝 웃으면서 내일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벽찬 통일에 일싸안을 나의 벗들이 있기에

### ■ 기분 좋은 날

오늘은 나 너무나도 기분 좋은 날 외롭지만 슬프지만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대를 찾아 떠나는 작지만 강철 같은 내 맘 그대 제발 알아주세요

그대 떠난 빈자리에는 그 무엇이 장미 한 송이 긴 한숨 속에 피어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는 추억 아닌 그대 마음이라오 길 비켜라 내 님 찾아가게

강물에 나 눈물 띄워 노 저어 그대에게 가겠어 성난 파도 만나 지켜서 푸른 바다가 되고  
하늘 구름이 되어 저 하늘 빗방울 되어 목마른 당신 마음 흠뻑 적셔주겠어

부는 바람 막을 길 없는 걸 난 알아 흐른 눈물 맞으며 사방팔방 막 나가리라  
정말로 안된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된다면은 그대 고이 보네드리오 야야-

강물에 내 눈물 띄워 노 저어 그대에게 가겠어 성난 파도 만나 지켜서 푸른 바다가 되고  
하늘 구름이 되어 저 하늘 빗방울 되어 목마른 당신 마음 흠뻑 적셔주겠어



오늘 너무나도 기분 좋은 날 외롭지만 슬프지만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대는 떠나셨지만 뒤도 안돌아보고 가셨지만은 오늘은 슬프지가 않네요

오늘은 아프지가 않아요 어-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

### ■ 바로 그 한 사람

이 세상 어디에나 태양이 비추듯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길을 걷다 체이는 돌멩이라 하여도 그것 없인 어떤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가지 마세요 그렇게 혼자 가면 당신도 외로울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 사람 바로 그 한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정말 잊어서는 안돼요 소중한 사람들을

### ■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등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가야지 아침하늘빛의 민트향이던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진 무렵에도  
비둘기를 안은 아이같이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라라....

### ■ 다시 떠나는 길

깊은 물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한번 길을 떠나면 드높은 산맥 앞에서라도 힘찬 날갯짓 멈추지 않고 제 길을 가는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말자 꿈쩍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하나 던져두고

자! 우리 다시 한 번 떠나보자 처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자! 우리 다시 한 번 떠나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을 사랑이여

###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의 동지 모-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 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하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가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 ■ 불나비

불을 찾아 헤메이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늘의 이 고통 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 자유여 오- 기쁨이여 오- 평등이여- 오-평화여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여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애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가시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위해 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탄압에 좌절도 하겠지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노동해방 그날까지 전진 전진 전진하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위해 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 ■ 오 필승 코리아 (꼭지점 댄스 주제곡)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오레오레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오레오레

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게 셋거라 이 세상아 내 노래 끝날 때까지  
멀어지는 저 노을빛 어두워가는 세상에 노래하자 내 친구야 폭풍처럼 가자 (\*2)

문득 올려다본 하늘 붉게 물든 구름 같은 내 꿈아  
수 없이 반짝이는 별들 나의 가슴만 아파오게 하는데  
של 새 없이 날아드는 태클 심판은 나를 보지 못했나  
순간 나는 알게 되었죠 나는야 언제나 혼자요

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게 셋거라 이 세상아 내 노래 끝날 때까지

소라 껍질 속에 갇혀 버린 해엄칠 수 없는 나의 바다여 나의 노래 소리 들리는가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일어나 똑같이 못사는 세상에 버려진 나는 바보 못난이  
이제 앞뒤 가릴 것 없다 받아라 필살 오프사이드트릭 뛰어라

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게 셋거라 이 세상아 내 노래 끝날 때까지  
멀어지는 저 노을빛 어두워가는 세상에 노래하자 내 친구야 폭풍처럼 가자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뛰어라 내 다리야(오 필승 코리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 필승 코리아)  
게 셋거라 이 세상아(오 필승 코리아) 내 노래 끝날 때까지 (오 필승 코리아)  
멀어지는 저 노을빛(오 필승 코리아) 어두워가는 세상에 (오 필승 코리아)  
노래하자 내 친구야(오 필승 코리아) 폭풍처럼 가자 (오 필승 코리아)

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게 셋거라 이 세상아 내 노래 끝날 때까지  
멀어지는 저 노을빛 어두워가는 세상에 노래하자 내 친구야 폭풍처럼 가자

내 어릴적 꿈과 같이 날던 기타여 오늘밤 나와 함께 천년의 건배를  
구슬과 같은 나의 여행길에 같이 떠나자 오늘밤도 내일 밤도 뛰어라

뛰어라 내 다리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게 셋거라 이 세상아 내 노래 끝날 때까지  
멀어지는 저 노을빛 어두워가는 세상에 노래하자 내 친구야 폭풍처럼 가자 (\*2)

## ■ 연락처 ■

■ 이임주 선생님 017-520-9413

한석주 선생님 ■ 017-270-3747

■ 신은미 선생님 017-209-4121

장성 한마음공동체 061)393-1925 ■

■ (전남 장성군 남면 평산리 614-27)

제천간디학교 ■ 043) 653-5792

이 자료집은 2006년 3월 넷째 주에 제천간디학교 1학년과 선생님들이  
무빙스쿨을 준비하며 함께 만들었습니다.©2006

